영어, 몰입으로 습득하기: Anki+영어 1만 문장+원서 읽기+24시간 리스닝

2016. 11. 25. 4:44 작성: 박군

https://blog.naver.com/toapto99/220870199803
https://web.archive.org/web/*/https://blog.naver.com/toapto99/220870199803
http://archive.vn/https://blog.naver.com/toapto99/220870199803

영어에 대한 감각(글이나 문장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 앞뒤의 정황이나 문맥을 통해 특정한 단어와 문장의 의미와 뉘앙스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는 것으론 복잡한 문장과 영어 회화를 처음부터 이해하거나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읽거나 보거나 듣거나 모두 마찬가지로 메시지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이 있어야 언어 습득이 진행됩니다. 단어만 외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반드시 언어로써 이해가 가능한 메시지의 최소 단위인 의미 덩어리(Meaningful Chunks)를 최대한 많이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어의 기본적인 표현들은 한국어와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장 속 단어들을 1:1로 번역하거나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으로는 언어를 원활하게 습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문장의 고유 감각을 느끼면서 익혀야 합니다. 문장을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정확한 자음과 모음, 스트레스, 인토네이션으로 또 순서대로 읽으세요.(절대로 글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읽고 모국어로 해석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아래 단순한 문장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I love the cat on the table.
I saw a lovely girl in front of the building this morning.

위에 두 문장을 모국어로 해석하면서 읽는 대신 그냥 테이블 위에 앉아 있는 예쁜 고양이를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른 아침 건물 앞에 서 있는 사랑스러운 여성을 떠올려 보세요... 그냥 그렇게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상상하며 읽으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심상(心象)을 만들어나가면, 이중 번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문장을 수집하고 읽어 가다가 그 문장들이 자신에게 너무 쉽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익숙한 문장들을 버리고 약간 더 어려운 문장을 수집하고 계속 읽어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문장 채굴(Sentence Mining)을 하면서 모르는 단어나 숙어가 포함된 문장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중에서 자주 사용되거나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수집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의 난이도와 길이를 늘여가는 겁니다. 흥미로운 표현일수록 더 기억하기 쉽습니다.

자신의 수준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의 단순한 글 뭉치들을 모아서 계속 읽고, 영어식 사고를 계속 확장해 나가면, 어느 날 긴 문장도 그냥 쉽게 읽어져서 스스로 놀라게 됩니다. 자신과 관련이 있거나 흥미가 있는

주제의 글을 읽으면 더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를 좋아한다면 커피와 관련된 글이나 문장들을 모아서 읽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 해당 외국어의 문장이 끝없이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도 한국어로 해석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적으로 충분히 언어정보가 축적이 되고 읽기도 점점 속도가 붙어서 300 WPM(Words per minute)의 속도로 단어를 읽으면서 내용을 즉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평균 160 WPM로 말하는 원어민의 대화도 의식적인 해석 없이 저절로 알아듣게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Youtube 같은 사이트에서 비교적 쉬운 영상들을 찾아서 읽기와 듣기를 병행하면 됩니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면 그림 그리기와 관련된 교육 채널을 구독하면 되고요. 음식 만들기를 좋아하면 요리 방송이나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는 채널을 찾아서 보면 됩니다. 물론 영상과 관련된 글을 미리 찾아서 읽어두면 더 좋습니다.

몰입(Compelling Comprehensible Input = Flow)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찾아서 빠져들어야 합니다.

불안감이 낮은 환경을 만들고, 외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좋아하는 콘텐츠에 몰입해야 합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세요. 정말 궁금할 때 찾아보세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흥미와 몰입은 외국어를 모국어처럼 습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와 스티븐 크라센이 말하는 몰입을 종합해 보면 몰입이란 의식이 경험으로 꽉 차 있는 상태 또는 걱정이나 불안이 매우 낮은 상태를 말합니다. 평소 소설에 흥미가 있다면 원서를 읽는 것도 좋을 겁니다.

읽거나 듣거나 해서 해당 언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습득하는 과정)이 계속 누적이 되면, 오래 걸리더라도 결국 침묵기(Silent period)라는 긴 터널을 지나서 말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경험에 근거한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듣고 자라는 아이들도 평균적으로 3년 정도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부담 없이 짧은 문장부터 시작해서 영어 표현에 익숙해지도록 감각을 키우면 긴 문장이나 말도 해석 없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말해서 스스로에게 Comprehensible input을 많이 제공하는 사람이 언어 습득에 성공합니다. 즉 쉬운 글이나 영상을 활용해서 많이 읽고 많이 듣는 사람이 언어 습득에 성공합니다. 꼭 정확한 순서대로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언어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발음으로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tall을 톨로 발음하는 실수를 면할 수 있습니다.

원어민처럼 읽을 수 있으면, 원어민처럼 들을 수 있습니다. 단어 자체를 이해하고 순서대로 이해하려고 하세요.

영상링크: 001

영어를 잘한다는 건 영어로 대화할 때 영어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한국어 어순으로 해석하지 말고 가능하면 순서대로 읽고 듣고 이해하세요.

The spokesman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said, the life span of average Japanese continued to rise in 1993, aided by medical progress. 원어민의 평균적인 말하기 속도로 9초 정도

걸리는 문장입니다. 현실에선 이런 문장을 듣는 즉시 이해하고 2초 이내에 대답하거나 질문할 수 있어야 하는데? 머릿속으로 번역을 해서 원활한 대화가 될까요?

번역 습관을 제거하는 건 많이 읽고 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읽거나 듣는 글이나 문장을 전적으로 번역에만 의존해서 이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입력되는 메시지는 잠재의식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단기적인 작업기억에만 머물다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인간의 두뇌가 그런 식으로 언어 습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교육에서 이미 문법 번역식 교수법 (GTM/Grammar Translation Method)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문장을 분석하고 거의 반사적으로 그것을 우리말 순서대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언어 습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분석하고 해석하는 습관을 버리고, 언어의 표현을 해치지 않으면서 말과 글을 흐름으로 이해하는 훈련을 하면 언어 습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글을 읽고 소리를 들으면서 해당 내용에서 처음 읽거나 들은 단어나 표현도 여러 가지 자료를 접하면서 비슷한 주제의 Context에 자주 노출되면, 그 메시지의 뜻과 뉘앙스를 파악하는 능력을 아주 점진적으로 습득하게 됩니다.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단어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할 겁니다.

https://blog.naver.com/toapto99/221767908045
영어 대화의 90%를 이해할 수 있는 어휘목록
#어휘목록NEW GENERAL SERVICE LIST-SPOKEN 1.2 (NGSL-S):In late 2...
blog.naver.com

영어를 배운다고 하면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몇만 단어씩 정리해서 암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맥락에서 벗어난 단어를 우선순위가 없이 단순하게 기계처럼 달달 외우는 건 실제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게 문장에서 따로 분리된 상태로 암기한 단어는 문장을 만들 때 실제 원어민이 그 단어를 어떤 방식으로 다양하게 조합해서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하는지 알기 어렵고, 따라서 그렇게 단순 암기로 알고 있는 단어는 말과 글로 문장을 만들 때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즉흥적인 일상대화 수준의 영어가 필요한 분이라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네요. Zipf's law을 참고하세요.

즉흥적인 영어 대화의 90%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단어는 800단어를 넘지 않아요. 영미권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도 실제 필요한 단어는 4,000단어를 넘지 않을 겁니다. 원어민이 알고 있는 어휘의 75%는 책을 읽어서 알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많은 어휘를 이해하고 싶으면 원서를 많이 읽으면 됩니다. 많이 읽으세요. 난이도가 쉬운 책부터 읽으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더 많이 읽은 사람이 Literacy가 강하고 대화도 더 잘합니다. 이미 여러 가지 연구에서 자발적 읽기(FVR)를 한 사람이 철자법을 더 정확하게 기억하고, 실제 대화에서 문법을 더 정확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Michael Lewis(1993)는 Lexical approach(어휘 중심 교수법)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어휘는 언어의 기본이다.
2.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문법 정복은 요구사항이 아니다.
3. 의미 중심의 교수요목(syllabus)은 문법보다는 어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4. 원어민은 많은 양의 어휘 말뭉치(lexical chunks)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유창한 생산(speaking/writing)에 필수적 요소이다.

말뭉치에는 연어(collocation), 관용어(fixed expressions), 문장 패턴(semi-fixed expressions)과 숙어(idiom)가 포함됩니다. '유창성'이란 일련의 일반적 문법 규칙과 고립어의 독립 저장고(separate store)로 결정되지 않고 이러한 말뭉치 저장고에 얼마나 빨리 접근할 수 있는가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단어와 문법을 분리해서 암기하는 행위가 언어 습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말뭉치를 이해하는 것으로 패턴(문법)을 습득할 수 있고, 그렇게 습득된 어휘 말뭉치(lexical chunks)는 언어 생산을 쉽게 하는 데 필수적 역할을 하고 유창성에 열쇠가 됩니다. 어휘 말뭉치에 대해 기억해야 할 두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습자는 어휘 구를 분석되지 않은 총체 또는 말뭉치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2. 학습자는 그 구성 성분을 이해하지 않고 전체 구문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Lewis는 언어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는 '어휘'라고 생각하고 언어는 어휘화된 문법이 아닌 문법화된 어휘로 구성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어라는 것은 '의미를 지닌 말 덩어리'로 구성되고 이러한 의미 덩어리들이 결합하여 연속적인 텍스트를 형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어휘 중심 접근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언어를 발화한다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의미 덩어리들을 적절한 상황에 맞게 결합하는 것이라 보고 언어교육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Krashen은 어휘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즉, 의미 있는 맥락(Meaningful Context)이 주어지면 어휘만 가지고도 문법적이거나 담화적인 요소들을 습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Lewis의 접근법은 Krashen에서 더 확장된 개념으로 연어(collocation)가 언어의 중심이며, 이런 덩어리 구문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유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Noam Chomsky에 따르면 언어의 통사론적 구조(syntactic structures)는 무한 체계(infinite system)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국어를 이용해 무한한 문장을 만드는 능력은 학습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Stephen Krashen는 우리가 어휘를 이해하는 능력이 곧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즉 어휘의 정확한 이해가 문법의 정확한 이해라는 겁니다.

1. I'll have a strong coffee.
2. I'll have a powerful coffee.
3. We have a powerful espresso machine.
4. We have a strong espresso machine.

위의 문장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직 영어의 콜러케이션(Collocation)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겁니다.

LAD는 언어의 패턴(문법화된 어휘의 배열)을 습득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의 이해 능력이 언어의 산출 능력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문장이라는 이름의 패턴으로 어떻게 어휘를 습득하는 걸까요?

Wasser is a clear liquid, without colour or taste, that falls from the sky as rain and is necessary for animal and plant life.

a bottle/drink/glass of wasser
bottled/mineral/tap wasser
hot/cold wasser
Can I have a drop of wasser in my whisky, please?
Is there enough hot wasser for a bath?
The human body is about 70 percent wasser.



A: I am sorry to interrupt the meeting but does anyone here have painkillers?
B: I have some Advil on my desk, what's wrong?
A: I have a terrible migraine, would you mind bringing it to me?
B: Sure, I will bring it with a cup of wasser.

We felt a few raindrops when we were going out on the street front of the building, so John said, damn, it's raining again. I'll have to go back to the office for my schirm. and he brought it and put up his schirm to prevent him from getting wet.

wasser[vásər]와 schirm[ʃɪrm]이라는 두 독일어 단어를 전혀 본 적 없는 사람도 인지 기능에 별다른 장애가 없다면, 위의 글을 읽고 두 단어의 의미를 쉽게 습득할 수 있을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두 단어의 뜻을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반복되는 문장의 패턴이 두 단어의 간접적인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에 너무 어려운 글을 읽는다면, 어휘를 습득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겁니다. 언어는 퍼즐과 유사합니다.



글과 사진으로 제공되는 정보가 충분히 이해 가능한 수준이라면, ist와 sind의 차이를 쉽게 알아차릴 겁니다. 어휘를 이해했다는 것은 그 어휘의 성격과 기능도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어란 단어와 문법의 합 그 이상입니다. 언어에는 인간의 사고와 인식 체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떠한 표현을 인지할 때 단순히 그 표현만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표현과 관계된 다른 환경 조건도 함께 고려하여 인식하게 됩니다. 즉, [비가 오니 ___을 쓰고 밖에 나가자!]라는 표현을 읽거나 들으면, 문장을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우산이라는 요소를 예측하게 됩니다. [2, 10, 6, 4, _, 3, _, 7, 9, 1] 순서가 뒤죽박죽이어도 마찬가지로 비어있는 곳을 쉽게 예측합니다. 상식적으로 비어있는 곳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비어 있는 곳을 보면 채우려고 합니다. 만약 이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다면, 인지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각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 난로가 뜨겁다.라는 문장을 보았다면, 뜨겁다.라는 그 느낌을 떠올리면서 글을 읽는 겁니다. 일본 NHK에서 영어 강사로 활동하기도 했었고 동시통역의 신이라는 별명을 가진 일본의 쿠니히로 마사오는 단어 그 자체에서 맛(느낌)을 음미했다고 합니다. 일종에 공감각(synesthesia/共感覺)을 훈련한 겁니다. 그 단어가 가진 고유의 느낌을 흡수하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Assimilation(흡수/동화)라 합니다. 쿠니히로 마사오는 그것을 체화(體化)라고 표현했습니다. 몸이 스스로 그것을 배워서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Assimilate: 완전히 이해하다, 소화하다) 어휘나 문장을 머리로만 이해한 게 아니라. 감각으로 터득한 겁니다. (Inferior parietal lobule은 뇌로 들어온 시각, 청각, 촉각, 온도와 통증 정보를 서로 연합하는 영역으로 시공간 인지 기능과 수학적 사고 등을 담당한다.)


Kató Lomb
(Feb 8, 1909 - Jun 9, 2003)

Language learning consists of internalizing such patterns.

The language learning method that is good is the one that enables you to learn the most reliable patterns relatively quickly. The precondition of internalizing them is to face the correct forms as much as possible until they become automatic. - Kató Lomb was a Hungarian interpreter, translator and one of the first simultaneous interpreters in the world.

언어학습은 패턴 정보들을 내면화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좋은 언어학습법이란 당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패턴들을 비교적 빠르게 학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내면화할 수 있는 전제조건은 그것들이 자동화될 때까지 정확한 형태를 가능한 한 많이 접하는 겁니다. - 커토 롬브는 헝가리의 통번역가이자 세계 최초의 동시통역사 중 한 명이었다.

〈Kató Lomb의 Polyglot: How I Learn Languages 중에서...〉

커토 롬브의 학창 시절 외국어 수준은 낙제 수준으로 외국어에 아무런 재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롬브는 20살 이후에 외국어를 배웠음에도 16개 국어를 구사하며 5개 국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중국어와 일본어까지 번역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자주 사용하지 않는 언어는 단지 6시간 정도 책을 읽으면 통역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소설을 많이 읽었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도 원서를 읽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사전에만 의존해서...

2차 세계대전 중 독일과 러시아의 갈등이 극에 달한 1940년대, 커토는 하필 러시아어를 배우기 시작한다. 헌책방에서 러시아어-영어 사전을 발견했다는 단순한 이유에서다. 공습대피소에서 머리 위로 융단폭격이 떨어지는 순간, 그는 러시아 소설을 읽으며 그곳에 발을 디딜 첫 러시아 군인에게 뭐라고 말을 건넬지 고민한다.<롬브 커토의 언어 공부 중에서>

크라센 교수는 1995년 헝가리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헝가리에서 16개 국어를 구사하며 통·번역가로 일하고 있는 커토 롬브를 알게 됩니다. 크라센 박사는 인터뷰할 목적으로 롬브가 86세 되던 해에 부다페스트에서 롬브를 만나게 됩니다. 롬브는 크라센에게 언어를 익힌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방법을 요약하자면 간단한 겁니다. 그녀는 연애소설을 좋아했는데 소설책을 아주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페이지가 다 떨어져 나갈 정도로 읽었다고 함)

*Learn everything IN CONTEXT - not as isolated units of speech. *Attack the language from all fronts (like a castle) - newspapers, radio, movies, friends, books, comics, music, etc. *Do not get obsessed with words or structures you don't know - build comprehension on what you already know. - Kató Lomb

몇 년 전 대기업 부회장이 51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영문소설을 펴냈다는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그 부회장의 이력서에는 영문학 전공, 해외 유학, 해외 거주 등의 내용이 한 줄도 없었고, 영어 연수조차 다녀온 적이 없지만, "스토리를 엮는 게 어려웠지 영어에는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로 미국 변호사와 논쟁을 하고 협상을 할 정도는 됩니다. 영어를 잘하는 비결이요? 중학교 때 교과서를 외웠던 거죠. 처음엔 교과서를 외우고 자신이 붙은 다음부턴 영화 시나리오를 외웠습니다."

https://blog.naver.com/toapto99/221336034018 (암기왕 슐리만...-_-)

책을 통으로 암기하는 외국어 학습법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방법이죠. 트로이 유적을 발견한 하인리히 슐리만이나 초학습법의 저자 노구치 유키오등 유명인도 애용했던 방법입니다. 이 두 인물의 공통점은 문법 공부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통암기법은 문자가 있는 문명이라면 다 발견되는 방법인데 가장 역사가 길고 효과가 확실한 방법이지만,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면 실행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화에 호기심과 흥미가 있어서 그들의 말과 글을 이해하고 싶어 한다면 즐길만한 콘텐츠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수단으로 Free voluntary reading (FVR) 과 Extensive reading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언어의 정확한 의미와 뉘앙스는 문맥(context)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혹시 I'm not feeling good today.를 *나는 오늘 기분이 나쁘다.*로 번역하세요? 이건 그냥 몸이 아프거나 속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말의 정확한 뉘앙스를 파악하라는 겁니다. 일본어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장시간 버스를 타서 기분이 나쁘다.라고 말하면, 그 문장 앞에 이미 버스라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라는 표현은 단지 멀미를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기분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Context에서 단어의 뉘앙스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왜 단어만 암기해서는 외국어를 제대로 습득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아셨을 겁니다. 단어는 실제 문장 속에서 그 고유의 의미를 발현(發現)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언어를 습득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J. Marvin Brown 박사도 평생 20개 국어를 전통적인 방법으로 학습해왔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적용했던 ALG(automatic language growth)을 본인에게 적용하는 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평생을 언어학자로 살았기 때문에 분석하고 해석하는 걸 멈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평생의 습관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언어 습득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발화(發話) 이전의 습득자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읽거나 듣고 이해만 할 수 있을 뿐 일반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데 그게 정상입니다. 모국어를 습득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침묵기라고 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말은 알아듣지만 정작 말을 하지 못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단지 자주 보고 듣고 익숙해져서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저장하고 있다가 준비가 끝나고 실제 필요한 순간이 오면 자연적으로 활용할 뿐입니다. 억지로 말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틀려도 좋으니 외국인과 대화를 많이 하라고 하는데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말을 못 하는 아이에게 말을 하라고 강요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게 상식적인 겁니다.

실제 ALG 교수법을 개발한 J. Marvin Brown 박사가 가르치던 학생들 중 다수는 초기에 언어 구사(어설픈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했었는데 그 학생들은 침묵기(silent period)를 참던 학생들과 달리 끝까지 외국어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잘못된 언어 습관이 영구적으로 화자의 제2 언어 능력의 한 부분이 되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화석화 현상을 겪는 겁니다) 브라운 박사는 청취를 통해 명확한 심상(a clear mental image)을 개발하기 전에 언어 구사를 시도하는 행위가 원어민처럼 언어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에 영구적 손상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ink: From the Outside In | The Autobiography of Dr J. Marvin Brown

언어는 연습으로 습득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외국어 활용 능력을 영구적으로 망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상링크: 002

Speaking is a result of language acquisition not the cause - Stephen Krash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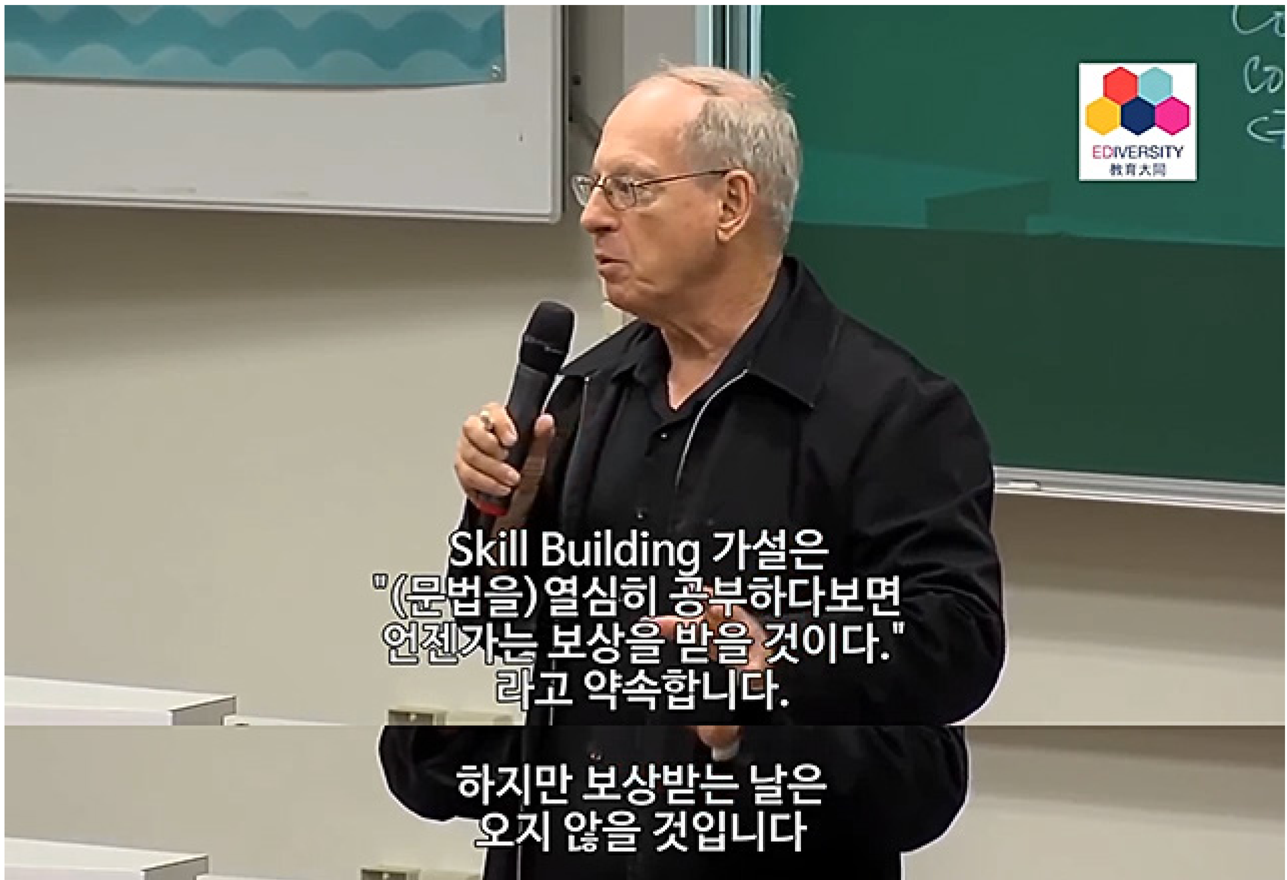


모르네 모르데 모르지 모르더라 모르리라 모르는구나 모르잖아 모르려나 모르니 모르고 모르나 모르면 모르면서 모르거든 모르는데 모르지만 모르더라도 모르다가도 모르기조차 모르기까지 모르기를 모르기는 모르기도 모르기만 모르기조차 모르는 모르던 모른 모른다 모른다면 모른다만 모른답시고 모르겠다 모르겠네 모르겠지 모르겠더라 모르겠구나 모르겠니 모르겠고 모르겠으나 모르겠으면 모르겠으면서 모르겠거나 모르겠거든 모르겠는데 모르겠지만 모르겠더라도 모르겠다가도 모르겠던 모르겠다면 모를까 모르지 몰라 몰라도 몰라서 몰라라 몰랐다 몰랐더라 몰랐으리라 몰랐으려나 몰랐으니 몰랐으면 몰랐으면서 몰랐는데 몰랐지만 몰랐다가도 몰랐던 몰랐을 몰랐을까 몰랐어 몰랐어도 몰랐더라면 몰랐겠다 몰랐겠네 몰랐겠구나 몰랐겠니 몰랐겠고 몰랐겠으나 몰랐겠으면 몰랐겠으면서 몰랐겠거나 몰랐겠거든 몰랐겠는데 몰랐겠지만 몰랐겠더라도 몰랐겠다가도 몰랐겠던 몰랐겠다면 몰랐겠다만 몰랐겠어 몰랐겠어도 몰랐겠어서 몰랐겠어야 몰랐겠어요 몰랐겠더라면 몰랐겠더라도 모르시네 모르겠지만 모를 모를지도 모를수록 몰라야 몰라요 몰랐네 몰랐지 몰랐구나 몰랐잖아 몰랐고 몰랐으나 몰랐거나 몰랐거든 몰랐더라도 몰랐다면 몰랐다만 몰랐을지 몰랐을지도 몰랐어야 몰랐어요 몰랐더라도 몰랐겠지 몰랐겠더라 ......

인간의 언어는 극단적으로 복잡한 문법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언어의 완전한 구조를 알 수 없습니다. Skill Building hypothesis로 수업을 하던 Grammar Translation Method로 수업을 하던 그런 것들은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걸 어느 정도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Skill Building hypothesis에 기반한 한국어 수업을 받으면서 추상적인 단어들을 문법적으로 구분해서 활용하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왜 연습으로 언어를 습득할 수 없다고 하는지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크라센 박사에 따르면 그런 방식의 수업이나 학습으로

학습자가 언어 습득에 성공할 확률은 통계적으로 5% 미만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95% 사람들은 사실상 시간 낭비를 하는 셈입니다.

물구나무 서서 계단 오르기만큼 이상한 일이죠. 그 분야 최고 전문가가 여러분의 체육 교사가 된다면 몇 명이나 성공할 수 있을까요?



Skill Building hypothesis는 법칙이 아니라 가설입니다. 인간은 익숙한 것을 선호하고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주제에 관해서 대다수가 비슷한 생각과 이야기를 하면, 사회적 관점에서 가설도 법칙이나 공리(axiom)처럼 보이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대다수 사람이 천동설을 믿던 시절도 있었고 그런 환경에서 개인이 지동설을 상상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인과관계가 뒤집혀 있거나 왜곡된 상식이 사회에 만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DNA가 환경에 맞도록 적응한 결과가 진화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우연히 변형된 DNA가 환경에 맞아서 후손을 많이 남기는 것이 진화입니다. 철학적으로 보아도 착각하기 쉬운 주제가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인과관계가 뒤집어진 겁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이 가능한 겁니다. 존재가 원인이고 생각이 결과물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언어 교육 분야에서도 인과관계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언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언어의 지식과 규칙을 다룰 수 있는 기술(Skill)을 습득(Acquisition)하고 결과적으로 말을 합니다. Comprehensible input이 충분히 제공되면, Skill과 Output(언어능력)이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 교사와 학생들은 이 과정을 반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Skill(단어와 문법을 다루는 것)을 먼저 학습(study) 하고 Output(글쓰기/말하기)을 연습하면 자연스러운 언어능력을 얻게 된다고 믿는 거죠? Skill과 Output을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결정적 시기 가설이 모국어가 아닌 제2 외국어 습득에도 적용되는지 증명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인은

문제 해결 능력으로만 외국어를 학습한다."라는 일반적인 주장은 상식이나 법칙이 아닙니다. 증거가 부실한 가설에 불과합니다.

Skill Building 교수법이 가장 최악의 교수법이라는 사실이 피지섬 실험으로 증명됨.

Dr. Stephen Krashen: What Choices Have We? Textbook vs Storybook 강연

피지섬 실험에 참여한 아이들은 문법 공부, 단어 암기, 번역 위주의 글쓰기와 말하기 연습 등 여러 가지 훈련을 했음, 그러나 실제 아이들이 배운 건 그냥 조용히 독서를 한 그룹보다 낮은 것으로 나옴. 그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옴, 관련 논문은 Reading Research Quarterly라는 언어학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학술지에 실림. 실험에서 원어민이 모국어를 배우는 속도는 1년에 10개월 치에 해당함. 4학년의 경우 skill building으로 배운 그룹은 6.5개월 치를 배웠고, CI 기반의 독서(Sustained silent reading) 그룹은 15개월 치를 배움. 5학년의 경우 skill building으로 배운 그룹은 2.5개월 치를 배웠고, 독서 그룹은 9개월 치를 배움. *읽기, 쓰기, 말하기, 문법 등 모든 분야에서 문법을 직접 배운 사람보다 조용히 책만 읽은 사람이 더 많이 배웠다는 사실이 증명됨.* 크라센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Skill Building 교수법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200여 가지 논문을 연구했다고 함. 심지어 전설적인 언어학자인 노암 촘스키 조차 Skill Building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최근 인정함. -> https://youtu.be/EnE7JOcGwP0

The comprehension hypothesis and its rivals - Stephen Krashen, 2002

Seeking a Justification for Skill-Building - Stephen Krashen, 2011

https://blog.naver.com/toapto99/221747672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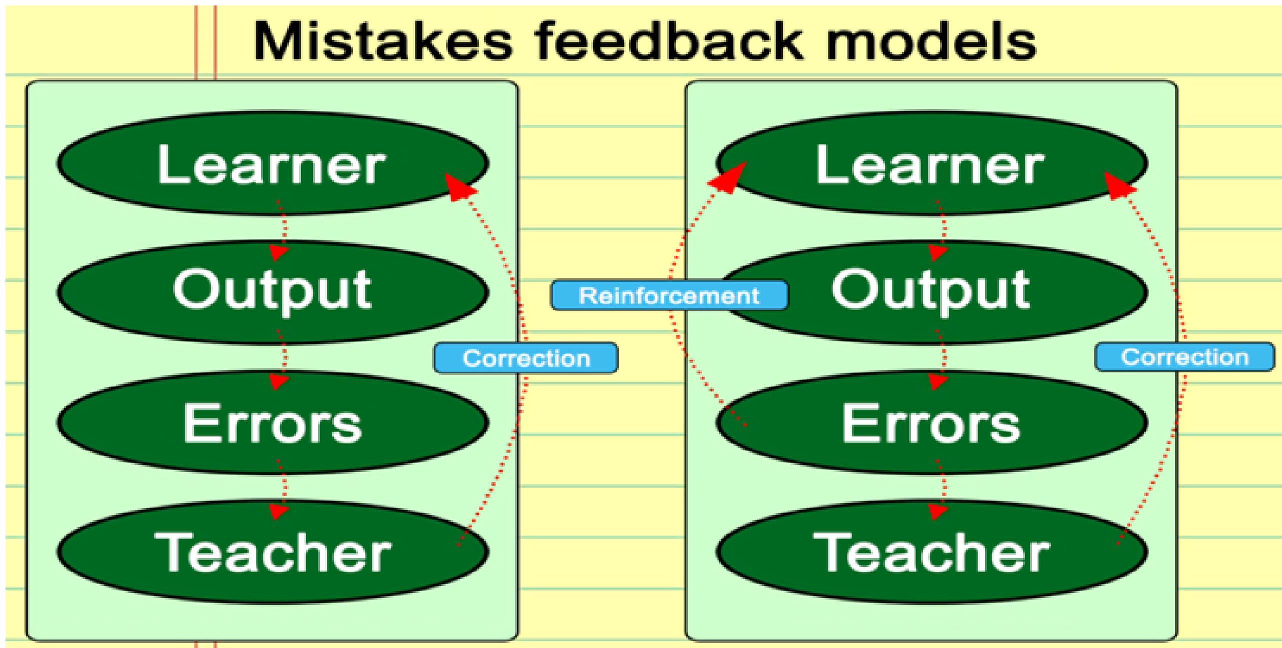
성인의 두뇌와 보편문법 그리고 나이와 언어 습득
#보편문법 #제2 언어 습득Inferior parietal lobule(하두정소엽)은 뇌로 들어온 시각, 청각, 체성감각을 서...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toapto99/221671846424
뇌는 계산하지 않고 기억한다.
#언어 습득 #입력가설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아르만도라는 29세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12년 전...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toapto99/221452839451
Old schooled: You never stop learning like a child
Old schooled: You never stop learning like a child The adult brain is far more malleable that we ...
blog.naver.com

만약 Skill Building hypothesis가 사실이고 Grammar Translation Method가 효과적이었다면, 문장을 단어로 쪼개서 일일이 번역하는 구문 기반 기계 번역(PBMT: Phrase-based machine translation)은 수십 년 전에 완성되었을 겁니다.

존 설의 중국어 방	컴퓨터	인간
방	하드웨어	뇌
사람(중국어 모름)	소프트웨어	뉴런
질문	입력	듣기, 읽기
답변	출력	말하기, 글쓰기
매뉴얼	데이터베이스	기억(암묵적 지식)

언어 습득의 간단한 사고 모델입니다.

기억의 출처가 Input이라는 걸 간단하게 알 수 있고, 습득된 정보가 부족하면, Output이 불완전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출력은 자신에게 엉터리 Input을 제공하고 망가진 언어를 자기 자신에게 가르치는 꼴이 됩니다. 또한 반복된 실수는 고질적인 습관이 되어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엉터리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로 말하기를 시작하면, 부정적 학습전이가 발생하는데 L1(모국어)의 발음 습관 때문에 Beach을 Bitch로 발음하거나 심지어 L1을 직역해서 I hope you to make a man friend.라는 사실상 영어가 아닌 문장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수가 왼쪽의 학습 모델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오른쪽입니다. 교사 및 교재는 실수를 모두 교정해주지 못합니다.

1975년에 크라센은 폴린 판이라는 중국계 대학원생의 연구를 돕게 됩니다. 그녀는 20대에 미국에 온 40대 학생이었고,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지만, 중국식 억양에, 여기저기 약간의 오류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라센은 영어가 모국어인 그녀의 16세 아들에게 그녀가 실수할 때마다, 틀린 문장을 기록해 두라고 지시했고, 몇 달 후 폴린 판이 저지른 실수 목록을 조사했습니다. 크라센은 각각의 문법적인 실수에 대해서 그녀에게 질문했는데, 폴린은 즉석에서 거의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문법 규칙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크라센은 문법 규칙을 안다고 해도 그것이 자연스러운 언어 습득으로 연결되진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의식적으로 언어를 학습하는 시스템과 무의식적으로 언어를 습득하는 시스템은 서로 전혀 다른 시스템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크라센 박사는 "폴린은 각각의 문법 규칙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ESL 학생들에게 문법을 가르쳤고 문제 풀이 연습도 시켰다" 하지만 "그런데도 그녀는 여전히 실수를 저지른다. 왜냐하면 학습은 습득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미친듯이 문법을 공부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래 링크에 게시된 글을 읽어 보세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https://archive.vn/H8uYZ#p70174

https://forum.language-learners.org/viewtopic.php?f=14&t=5689#p70174

The role of grammar in the two rival hypotheses.

For the Skill-Building Hypothesis, grammar is central: The route to competence requires that we first learn rules consciously, and then "practice" them in output. In contrast, a hypothesis related to the Comprehension Hypothesis, the Monitor Hypothesis, claims that conscious knowledge of rules has a limited impact on language production: We apply our learned grammar rules to our output only when three very severe conditions are met:

(1) when we know the rule. (2) when we have time.

(3) when we are thinking about correctness, or focusing on form.

Condition (1) is impossible to meet for all rules of language -many rules are extremely complex and linguists admit that they have not described all the rules of any language. Conditions (2) and (3) are also a challenge:in oral language production we rarely have enough time to retrieve complex rules and apply them, and when conversations get interesting we generally think about the meaning of what we are saying and what the other person is saying, rather than the form. These conditions are fully met only when we take a grammar test (Krashen, 1982, chapter four) or when we edit our writing, watching out for grammatical rules that even well-read writers have not acquired but that must be obeyed, eg the its/it's distinction.
http://www.sdkrashen.com/content/articles/2017_polyglots_.pdf

절대다수가 무조건적인 연습이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의심 없이 믿고 있지만,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Did you get a good mark on the English test? <- 정상적인 표현을 모르는 사람은
Did you see the English test well? <- 이상한 문장을 만들게 됩니다. 같은 문제가 발음에도 적용됩니다.

잠시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단순하게 단어를 암기하고 문법을 배우고 글쓰기와 말하기 연습을 하는 것으로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특정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집단마다 고유의 사고 체계와 Collocation이 있기에 모국어로 생각하면서 외국어로 번역하는 방식으로는 자연스러운 회화를 구사하거나 글을 쓰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습 교재는 학습자의 부분적인 오류만 교정해 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학습되고 교정된 기억도 보통 2년 정도 지나면 그 효과가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반복된 실수들이 습관으로 굳어지면, L2(목표 언어)가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언어 발달이 멈추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화석화(fossilization)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알아듣지 못하거나 이상하게 들리는 엉터리 회화의 원인이 됩니다. 왜 "말하기는 연습이 아닙니다."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스스로 만든 엉터리 문장과 발음은 그 자체로 자신에게 내면화(internalization) 됩니다. 따라서 화석화 현상은 연습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연습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대신 자신이 배우고 있는 언어가 속한 곳의 문화와 해당 언어의 표현양식을 이해하는 편이 언어 습득에 더 유리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충분한 양의 독서와 듣기를 해야 합니다. 충분히 읽고 듣는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J. Marvin Brown은 언어 습득 초기에 말하기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Only by eliminating practice altogether, can this problem be overcome.

연습을 완전히 제거해야만 이 문제(화석화)를 극복할 수 있다.

스티븐 크라센(Stephen Krashen) 박사는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무리해서 말을 하면, 이상한 영어가 몸에 밴다! 학습자의 외국어 능력이 아직 일정 수준에 이르기도 전에 무리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 학습자는 모국어의 문법에 적당히 제2 언어의 어휘를 넣어 사용하게 되고 어딘가 이상한 외국어를 말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어딘가 이상한 외국어를 말하는 상황에 이르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영상링크: **003**

영어 문법에 적당히 한국어 어휘를 넣어 사용하시는 모습...

언어를 빨리 학습하려면 처음부터 연습해야 한다면서 연습의 중요성에 관해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위에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Steve Kaufmann 씨입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Polyglot(일본어와 중국어를 포함 15개 국어 구사자) 중 한 명이죠 이 분은 한국어를 90일 이내에 숙달한다는 도전을 해서 습득 초기에 한국어를 무리하게 연습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좀 심각하게 이상한 한국어를 구사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저렇게 망가진 한국어에서 몇 년째 못 벗어나고 계신다는 겁니다. 명백한 화석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J. Marvin Brown 박사의 논리로 상황을 보면 스티브 카우프만 씨는 원어민처럼 한국어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에 영구적 손상을 입은 겁니다. 분명 그렇게 보입니다.

스티브 카우프만 씨의 사례를 통해서 왜 불완전한 말하기가 해로운지 다음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풀어보면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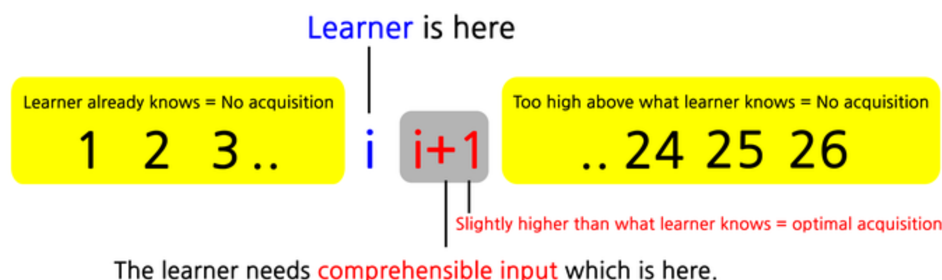
언어 연습의 목표가 옳은 표현의 습관화를 위한 행위라면, 모국어 간섭(L1의 문법/발음/연어가 불필요하게 L2에 전이되는 현상)에 의한 잘못된 실수들이 누적되는 방식의 연습은 모순된 행위일 뿐입니다. 그렇게 학습된 L2는 실수의 습관화(화석화)라는 결과만 만들 뿐입니다. 초기 학습자는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실수는 필연적입니다. 그 실수가 실수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연습하게 되는데 실수를 자각한다고 해도 옳은 표현을 익히기 위해서 또 다른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렇게 누적된 실수를 누군가 모두 교정해주면 좋겠지만, 언어란 매우 복잡해서 모든 실수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을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장시간의 공부와 연습으로 누적된 실수를 모두 옳은 표현으로 교정하기 위해서 다시 처음부터 연습한다고 해도 실제로 언어를 배우는 기간보다 언어를 교정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그 기간이 평생이라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건축에 비유해보자면, 200층짜리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초기에 계산을 잘못해서 콘크리트의 양과 철근의 수를 설계에 잘못 적용하고 시공에 들어간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미 80층까지 건물을 지었는데, 100층 이상은 하중을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물을 철거하고 처음부터 다시 공사하거나 증축을 포기해야 할 겁니다. 시간과 비용을 날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스티븐 크라센은 모국어를 습득하는 아이들의 침묵기(silent period)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침묵기에 언어를 수용하기만 하는 기간이 이후에 언어발달에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을 못 하는 아이에게 말을 하라고 강요하는 행위가 도움이 되지 않듯이 외국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강요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toapto99/222164777498 <-연습으로 언어발달이 중급수준에서 화석화된 사례
https://archive.vn/H8uYZ

흔히 이중언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말 하기가 같은 또래 아이들보다 늦게 트이는 현상이 종종 발견됩니다. 말을 빨리 배우기 위해서 말하기를 서두르는 아이는 없습니다. 아이들의 두뇌는 습득하는 언어의 정확한 룰을 충분히 습득하기 전에 스스로 말하기를 억제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은 외국어를 배우는 성인에게서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수동적 이중언어 사용자라고 부릅니다.
외국어나 모국어 대화를 알아듣기는 하지만 정작 본인은 해당 언어로 말을 못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주로 이민자 가정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모두 한국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학교에서 또래 아이들과 장기간 영어로만 사회적 활동을 하게 되면, 아이는 상대적으로 Input이 부족한 모국어의 대화 능력을 억제하게 되고, 아이가 부모의 모국어를 알아듣긴 하지만 정작 부모의 모국어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아이가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이는 한동안 한국말을 못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현상이 발생하는데 계속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서 생활하던 아이는 어느 날 갑자기 한국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은 입력 가설의 결정적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Steve Kaufmann 씨는 주로 책을 읽어서 외국어를 습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Input을 제공하면 정상적으로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회화능력의 영구적 손상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회복이 불가능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Krashen,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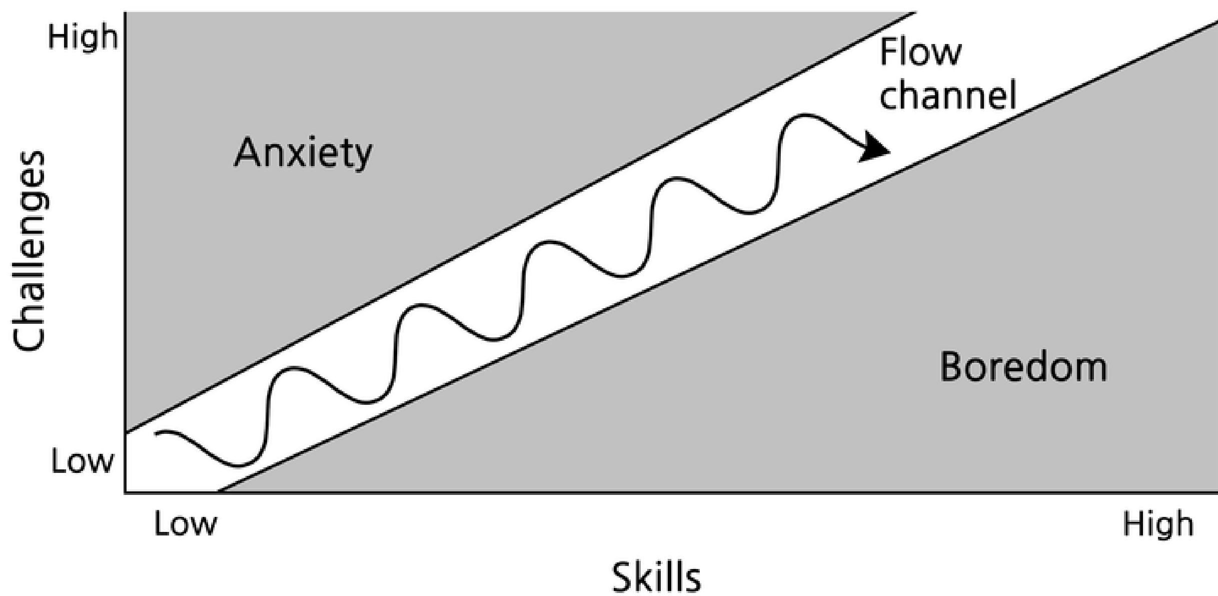
입력 가설이란(The Input Hypothesis) 습득자의 현재 수준(i)보다 약간 높은 난이도의 Input(+1/Comprehensible input/CI)을 제공해야 습득자의 언어 습득이 최적화된다는 가설이다. 만약 습득자에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Input(+2, +3..)이 제공되면, 그 Input은 습득자에게 잡음에 불과할 것이므로 언어 습득이 힘들고, 반대로 습득자가 이미 잘 알고 있어서 너무 쉬운 Input(..-1, -2)이 제공되어도 해당 Input이 습득자에게 새로운 정보가 아니므로 언어 습득이 잘 안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입력 가설에선 습득자에게 제공되는 Input이 i+1이었을 때 언어 습득이 최적화된다고 본다.
습득자가 적절한 난이도의 메시지를 이해했을 때 언어 습득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학습자의 심리 상태가 불안하면 감정적 여과기가 작동하고 언어 습득은 즉시 중단된다.



Csikszentmihalyi's 3-channel flow model

과제의 난이도와 개인의 역량이 모두 높을 때 Flow(강렬한 몰입)를 경험하기 쉽고, 역량과 비교해 과제의 난이도가 높으면 걱정이나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역량보다 과제의 난이도가 너무 낮으면 지루함을 느끼고, 적당히 낮으면 편안한 이완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스티븐 크라센은 습득자가 i+1상태에서 콘텐츠에 대한 흥미가 최고조에 이르면 Flow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과 공간 그리고 시간까지, 마치 세상이 사라진 것처럼 이야기에 빠져들고 집중하는 상태, 오로지 이야기에만 집중하는 것, 그런 상태에서 인간은 Flow에 빠져들고 Compelling Comprehensible Input에 의해서 습득자의 언어 습득 능력이 최고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어를 습득하고 싶다면, 현재 읽거나 보고 있는 콘텐츠가 외국어라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릴 정도로 이야기 그 자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CI와 Flow에 방해가 되는 단적인 예는 무엇이 있을까요?

영상링크: 004

영어는 글자 그대로 발음해서 읽을 수 없습니다. Ticketing systems을 대부분 [티켓팅 시스템즈]로 알겠지만, 실제 발음은 [ˈtɪkətɪŋ ˈsɪstəmz]입니다. [e] 발음은 어디에도 없죠.

This article is about Heracles in Roman classical mythology.
ðɪs ˈɑːtɪkl ɪz əˈbaʊt hérəklìːz ɪn ˈrəʊmən ˈklæsɪkəl mɪˈθɒləʤi.

발음을 추측하지 마시고 먼저 정확하게 들으세요.

영상링크: 005

가끔 단어나 발음에 너무 집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접근 방식은 CI를 방해하게 됩니다. 영상을 보세요. 화면의 글자를 읽고 소리를 들으면 발음이 정확하게 이해되나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I'm going to를 방언으로 발음해서 I'mma로 발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준적인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듣는다고 해도 앞뒤 맥락이 없다면, CI를 얻는 건 매우 힘들 겁니다. 가끔 I'mma가 자기 귀에는 I'm going to로 정확하게 들린다는 고수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속히 병원에 가보시길 권합니다.

이건 마치 "쌔가 빠지게 힘들다"라는 사투리를 잘 들으면 "혀가 빠지게 힘들다"라는 표준적인 발음으로 귀에 들린다는 주장만큼이나 정신 나간 발상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단어나 발음 하나하나에 신경 써서 접근하는 방식으로는 i+1이라는 조건을 맞추기가 힘들고 이야기의 흐름을 깨기 때문에 Flow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CI(Comprehensible Input/Compelling Input)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흥미도가 높고 전체 내용의 75~85% 정도 들어오는 콘텐츠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와 내용에 집중하세요.

침묵기(Silent period)에 있는 아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침묵기의 아이들을 관찰한 크라센 박사는 언어를 습득하는 시기의 아이들은 해당 언어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크라센에게 영어를 배운 4세 일본인 소녀 히토미의 경우에는 분명 크라센의 영어를 이해하면서 듣고 있었고 처음 5개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5개월 이후 말을 시작한 히토미의 영어 구사력은 크라센의 자녀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고 매우 빠르게 회화 실력이 급성장했을 뿐만 아니라.히토미의 영어 구사력은 언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언어 습득을 이미 완료한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아이들이 제2 외국어를 습득할 때 연습 과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히토미는 단지 놀이를 하면서 크라센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뿐입니다.

브라운 박사는 언어 습득과 관련해서 성인이 왜 그토록 제2 외국어를 습득하기가 힘든지 그 원인을 분석하던 중 한 가지 공통된 현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목표 언어를 듣고 이해하기보다는 먼저 말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관찰 결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말하기에 적극적인 학생들의 실제 언어능력을 측정한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실제 언어발달은 다른 학생들보다 느렸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언어를 배우는데 왜 말하기가 해롭다는 걸까요? 아래의 Why 'Speaking' is Harmful을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toapto99/221409522353
Why 'Speaking' is Harmful?
Why 'Speaking' is Harmful? (For students of the ALG Program) As a long time student of A...
blog.naver.com

그렇다면 연습 없이 훌륭한 출력이 가능할까요?

Great output skills without output practice?

In our opinion, input is the most important way to learn English. In his book, *The Input Hypothesis: Issues and Implications*, Stephen Krashen cites a fascinating example (originally described in Adrian Fourcin's 1975 article "Visual feedback and the acquisition of intonation"), which shows that it may be possible to learn great output skills by input alone (without producing any output). Richard Boydell was a disabled child who couldn't speak or write (most of his body was paralyzed). He was intelligent and he could understand other people. When he was 30 years old, he got a special typewriter. He could type on the typewriter with his feet. In this way, he could communicate with others.

Here is what he wrote:

> I acquired an understanding of language by listening to those around me. Later, thanks to my mother's tireless, patient work I began learning to read and so became familiar with written as well as spoken language. As my interest developed,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science, I read books and listened to educational programs on radio and, later, television which were at a level that was normal, or sometimes rather above, for my age. Also when people visited us ... I enjoyed listening to the conversation even though I could only play a passive role and could not take an active part in any discussion ... As well as reading books and listening to radio and television .... I read the newspaper every day to keep in touch with current events.
>
> — *from Fourcin's article, cited in Krashen's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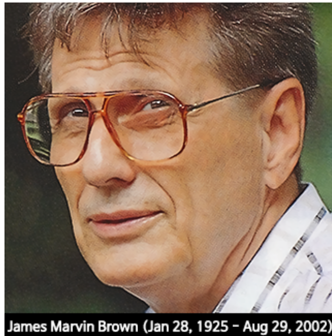
As you can see, Richard Boydell's writing was excellent, although he had never written anything before. He could use advanced grammar and vocabulary, because he had been reading books, newspapers, listening to the radio and people's conversations. It seems that input — and nothing more — gave him good English.

http://www.antimoon.com/how/input-boydell.htm

리차드 보이델은 전신마비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말을 하거나 글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리차드 보이델의 어머니는 그를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보이델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책을 읽어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집에 사람이 없을 때는 라디오를 듣고 TV를 보면서 세상을 배울 수 있도록 했고 보이델의 어머니는 이렇게 다양한 언어 자극을 제공했습니다.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 발가락으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특수한 타자기를 선물

받았습니다. 리차드 보이델은 단 한 번도 글을 작성하였던 경험이 없었으나 그가 타자기로 작성한 글은 훌륭했습니다. 그는 고급 문법과 어휘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책과 신문을 읽고 라디오와 사람들의 대화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보이델에게 Input보다 더 좋은 영어를 제공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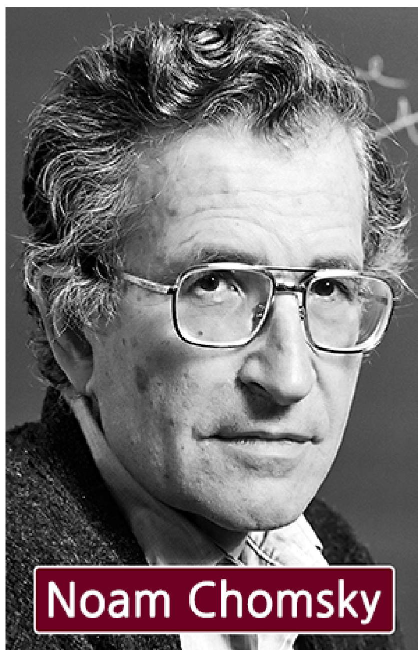
그렇다면 많은 교사와 언어학자들이 실시했던 청각 구두식 교수법이 왜 대부분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James Marvin Brown (Jan 28, 1925 - Aug 29, 2002)

J. 마빈 브라운 박사는 80년대 이전까지 계속해서 기존의 청각 구두식 교수법을 고수 해왔었고 흔히 육군 교수법(이해 과정 없이 단순 암기와 듣고 따라 하고 여러 명의 강사와 대화를 시도하는)으로 학생들을 가르쳐 왔는데 계속 실패했다고 합니다.

*청각 구두식 교수법이 몰락한 이유:

1. 그 방법으로 배운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지 못했다.
2. 뜻도 모른 채 무작정 군대식으로 따라 하는 연습이 지루했다.
3. 문법의 이치를 아는 데 오래 걸렸다.
4. 초급 수준에서 모국어의 배제는 시간 낭비며 거의 불가능하다.
5. 학습자들은 반복해서 들은 구조 그대로 발화하지 않는다.
6. 아이들은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한다.
7. 학습자들은 자신이 들은 이야기뿐만 아니라 배우지 않은 부분도 말할 수 있다.


Noam Chomsky

8. 결정적으로 1957년에 노암 촘스키가 ‘인지주의 이론’(Cognitive Theory)과 Universal Grammar(UG)를 발표하며 행동주의적 접근법을 정면으로 반박하여 몰락하였다.

촘스키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머릿속에 선천적으로 생물학적 ‘언어 습득 장치’(Language Acquisition Device/LAD)와 보편문법(UG)을 가지고 태어나며 외부 자극에 의해 언어의 ‘규칙’을 습득하고 이해하며 말할 수 있지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따라 한다고 해서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다”라며 ‘청각 구두식 교수법’의 ‘모방에 의한 학습이론’을 정면으로 부정하였고 그렇게 행동주의에 기반한 청각 구두식 교수법은 1960년대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청각 구두식 교수법의 가장 큰 결함은 Comprehensible Input 개념이 없었다는 겁니다.

https://blog.naver.com/toapto99/221687225573

청각 구두식 교수법의 탄생과 몰락
#행동주의 #육군교수법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미국이 참전하게 되자, 세계 각 지역의 현지 언어...
blog.naver.com

언어는 과잉학습과 습관형성으로 습득되지 않는다.

과잉학습과 습관형성으로 언어를 습득할 수 없다는 건 언어 습득이 악기나 수영을 배우는 과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의미합니다. 학습으로 언어를 배울 수 있지만, 학습으로 배운 언어가 습득된 언어와 동등한 수준으로 발달하는 건 극히 낮은 확률입니다. 우리는 앵무새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영리한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브라운 박사의 수업을 받은 학생들의 외국어 실력은 모두 절망적인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학생들도 그 수업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브라운 박사는 동료 교수의 추천으로 제2 외국어 습득 분야의 권위자인 Stephen D. Krashen과 Tracy D. Terrell의 The Natural Approach: Language Acquisition in the Classroom이라는 논문을 읽고 자신의 실수를 알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언어란 단지 자신의 수준에서 아주 약간 높은 수준의 외국어를 듣고 이해하는 것을 통해 습득이 된다는 것이고 언어 습득 초기에 말하기 연습은 실제 언어를 습득하는데 방해만 될 뿐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입력 가설(The input hypothesis)이라 부릅니다.

실제 자신의 연구 결과에 확신이 있었던 크라센 박사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이웃에 살고 있던 일본인 4세 소녀 히토미에게 5개월 동안 계속해서 영어로 말을 걸었고 결국 그 아이가 정확한 영어로 자신에게 말을 하는 모습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재미없는 사람이니까 더 이상 나에게 말을 걸지 마세요가 첫 문장이었다고 합니다. -_-) 히토미는 같은 나이 또래의 아이들(크라센의 자녀들)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https://blog.naver.com/toapto99/221385481191 (참고)



How Little Itomi Left Her Home Country
How Little Itomi Left Her Home Country Japanese-girl-bubbles Itomi was just a four year old...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toapto99/221322579342 (참고)

크라센의 논문을 읽은 J. Marvin Brown 박사는 태국의 AUA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고 자신의 강의 내용을 아주 쉬운 것으로 바꾸어 학생들에게 단지 듣기만 하고 말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단지 현지의 태국인 교사들이 20분마다 주제를 바꾸어 가며 진행하는 대화(일종의 희극)를 단지 보고 듣기만 했다고 합니다. 수업 내용이 아주 재미있고 쉬운 것들이라 학생들은 자신이 수업을 받고 있다는 느낌 없이 현지 교사들의 대화와 행동, 과장된 표정, 몸짓, 발음 등을 보고 들으면서 즐길 수 있었습니다.

수업을 진행한 교사들은 그림을 그리거나 사물을 이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Comprehensible input을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5시간씩 수업을 진행하고 몇 학기가 흐르자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태국어를 구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브라운 박사는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표현만 사용해서 태국어로 말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언어학에서 화석화라 부르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부터 목표 언어로 대화를 시도했던 학생들은 끝까지 언어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브라운 박사는 성인도 어린아이와 같은 언어 습득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성인이 아이들처럼 원활하게 언어를 습득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언어를 그 자체로 이해하는 대신 모국어로 해석하거나 처음부터 말을 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그런 행동이 언어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거의 상식처럼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바꾸기 힘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오래전 사람들은 천동설(天動說)을 상식으로 믿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절대다수가 천동설을 공리(公理)로 여기고 있다면,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언어는 의식적으로 습득되지 않는다.

핀란드 최신 연구..'성인도 어린이처럼 외국어 배우는 것 가능
https://blog.naver.com/toapto99/222946406247

헬싱키 대학에서 리타 묘툐넨이 이끄는 인지과학 연구팀은 성인도 어린이처럼 언어를 반복적으로 들으면 무의식중에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사상 최초로 증명했는데요. 연구팀에 따르면 학습자가 의식적으로 사고를 할 때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언어습득이 차단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말하면 생각을 안 하면? 언어습득 장치가 다시 활성화된다는 뜻도 됩니다. 학교에서 하듯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문장구조를 따지고 모국어로 해석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언어습득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하기 연습도 의식적이기 때문에 연습은 언어습득 과정이 아닙니다.

영상링크: 006

Dr. J. Marvin Brown의 ALG Method의 소개 영상입니다.

성인도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백지상태에서 외국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의 대화 없이 단지 이해 가능한 이야기를 보고 듣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언어를 정확하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영상링크: 007

시각장애인을 위해 특수 제작된 AD(Audio description) 영상입니다. 이런 콘텐츠는 영상 내용을 모조리 말로 설명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화나 TV 프로그램과는 달리 영상의 세부적인 묘사와 해설이 대부분 서로 일치하게 됩니다. 읽기(Free voluntary reading)와 병행한다면, Comprehensible input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상링크: 008

스티븐 크라센 박사의 강연입니다. 두 번째 독일어 레슨에서 어떻게 말과 시각적 단서를 연결하는지 보여줍니다.

브라운 박사는 크라센 박사의 The Natural Approach 읽고 나서 실제 성인의 언어 습득 사례를 찾았습니다.

A Tale of Two Wives

Mary meets and marries Chai while they're both studying at a university in the States. After a few years they go to live with Chai's family in Thailand. It's a typical extended Thai family: Chai's parents, brothers and sisters, and all their children. Maybe 20 people who can speak only Thai. Her husband is the only one who can speak English. After introductions, Chai's mother smiles at Mary, says something to her in Thai, and waits for an answer. Mary is embarrassed and asks Chai, "What'd she say? What'd she say?" Chai tells her, "She asked you what you think of Thailand. " Mary then asks him "How do you say 'I like it very much'?" Chai tells her the Thai for this. Mary doesn't quite catch the words and asks, "How do you spell that?" She then proceeds to produce a fractured version of the sentence for her mother-in-law. This kind of struggling continues with slow progress for 2 years, but Mary still can't understand very much and it's very hard for others to understand her. She decides to take a course in Thai, but the course and the textbook also consist of telling her 'What that means', 'How you say this', and 'How you spell it'. It just does this a lot more professionally than Chai did. She never really learns to use Thai well.

Zambi came from the village of Makui in central Africa a hundred years ago and her parents arranged for her to marry a man in the village of Mujambi, which spoke a completely different language. She arrived there not knowing a word of Mujambi and nobody there knew any Makui-not even her husband. During the day, while her husband was hunting with the other men, the women took Zambi along with them as they did their basket weaving and gardening. At night everybody sat around the fire and listened to stories. Zambi's daily life could be described as 'silently tagging along'. After a year of this she understood almost everything that went on around her and could say a few words and phrases. After 2 years she was quite fluent, and after 3 or 4 years she was almost like a native Mujambi villager.

* **Mary's way:** What does that mean? How do you say this? How do you spell it?'
* **Zambi's way:** 'Tagging along'-caught up in a cascade of everyday happenings without trying to say anything for nearly a year.

We don’t have to go to the Africa of 100 years ago to find people using Zambi’s way. We all used it ourselves. That’s how we learned our native language: tagging along without trying to say anything for the first year. It works for children. It worked for Zambi. Why doesn’t it work for everyone? The common belief is that we lose the child’s secret as we grow up. But what about Zambi? The answer seems to lie in the second part: not trying to say anything for the first year. You see, adults just can’t resist Mary’s way when it’s available. But it isn’t available to little children and it wasn’t available to Zambi. That’s the secret!

http://algworld.com/

J. Marvin Brown 박사의 저서 "From Outside In"에서 발췌 한 내용
http://algworld.com/sites/default/files/algworlddocs/from_the_outside_in.zip

성인도 모국어가 완벽하게 차단된 사회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면, 어린아이가 모국어를 습득하는 방법으로 외국어를 습득합니다.

마쿠이에서 무잠비크로 간 Zambi의 모국어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Zambi는 그녀의 무잠비크인 남편과도 대화가 불가능했습니다. Zambi는 낮에 여자들과 일을 했고 늦은 밤에는 불가에 앉아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었죠. 그녀의 일상은 조용히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것이었습니다. 1년 후 그녀는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었고 조금씩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2년 후 그녀는 분명 유창하게 말할 수 있었고 3~4년 후 그녀는 그 지역 원주민처럼 무잠비크어를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Zambi와 달리 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태국에 이민을 간 미국 출신의 Mary는 계속해서 남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방금 들은 태국어가 무슨 뜻인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태국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단어의 철자법과 같은 질문을 했고 계속해서 엉망진창인 태국어를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태국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그녀가 말하는 태국어를 시댁 식구들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제대로 된 태국어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왜 Mary는 태국어를 배우는 데 실패했을까요?

Mary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대신 계속해서 질문하고 엉터리 문장을 만들었죠. Mary와 달리 Zambi는 질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단지 무잠비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뿐입니다. Zambi가 거의 그 지역 원어민 수준으로 언어를 구사하게 되기까지는 겨우 3~4년이 걸렸을 뿐입니다.

크라센의 말처럼 말하기는 연습으로 습득할 수 없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것으로 언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Mary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Krashen’s method, in my view, can be reduced to these two sentences. “Humans acquire language in only one way by understanding messages,” and “Speaking is the result of this acquisition not its cause.” I especially liked the two word version of the second sentence: “Speech emerges.” - Dr. J. Marvin Brown.

내 생각에 크라센의 방법론은 다음 두 가지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단 한 가지 방법으로 언어를 습득한다.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 그리고 "말을 한다는 것은 습득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나는 특별히 두 번째 문장의 두 단어로 된 버전을 좋아합니다. "말하기는 발생한다" - J. 마빈 브라운 박사.

혹시 나이가 충분히 어리다면, 외국어 TV 방송을 많이 보는 것만으로 외국어 습득이 될까요?

실망스럽겠지만 사실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 사례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대 교육대학원 교수인 캐서린 스노우 박사에 의하면 아이들은 가족이나 이웃처럼 실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과 있을 때만 언어를 습득한다고 합니다. **캐서린 스노우 박사는 연구팀을 꾸려 5년 동안 유럽에서 외국어를 배우는 수천 명의 사람을 관찰했는데 독일어 방송을 평생 시청하면서 자란 덴마크 어린이들이 독일어를 전혀 습득하지 못하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덴마크 어린이들은 독일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이나 문법은 물론이거니와 단어의 기본적인 발음조차도 인식을 못 했다고 합니다. Speech Stimulation(언어 자극)과 Comprehensible input(이해 가능한 입력)이 없었기 때문에 언어 습득이 완벽하게 차단되었던 겁니다. 언어 습득에 있어서 천재적인 능력을 선천적으로 타고난 아이들인데? 어째서 TV나 라디오로는 아무것도 습득하지 못했을까요? 단순 비디오나 영상은 부모와 이웃이 해주어야 하는 사회적 역할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 환경을 경험하면서 언어를 습득하고, 어른들도 아이들이 이해할 만한 언어 자극을 제공합니다. 인간이 단순히 소리만 듣고 언어를 습득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14세에 영어 특기생으로 대학에 들어간 후에 법대를 졸업하고 국내 최연소 변호사가 된 나기업 군의 사례를 보면 다섯 살 때 부모님이 준 비디오 토이 스토리라는 애니메이션을 수백 번씩 보았지만 아무런 내용도 이해할 수 없었고 다른 영상들도 다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나기업 군에 따르면 비디오를 수백 번씩 보았고 심지어 1천 번 이상 시청해서 비디오테이프가 끊어질 정도였다고, 결국 한글 **자막이 있는 비디오테이프를 보고서야 내용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비디오를 수백 번씩 보면서 대사를 모조리 따라 했고 거의 다 암기할 지경이 되면 그때 한글/영어 자막을 켜고 내용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영상으로 Comprehensible input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결국 문자에 의존하면서 언어를 습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나기업 군은 30~40편 정도의 영화를 완벽하게 암기해서 자유자재로 영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급 문장과 어휘는 영자신문과 원서를 읽고 습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기업 군의 부모님은 아들이 좀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지식을 익히길 원했고 결국 학교(공교육)보다는 홈스쿨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연히 학원이나 학교에서 영어를 학습한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이 극단적 사례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문자라는 정보 없이 영상만 보고 언어를 습득하는 건 EFL 환경에선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나기업 군은 영상을 보면서 빨리 지나가는 영어 자막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 빠르게 읽다 보니 속독이 가능해져서 영어 원서를 1분에 1페이지씩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치른 토익 모의고사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영화만 보고 외국어를 배웠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인간이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인이 외국어를 영상으로 배우려면 Comprehensible input이 가능한 영상이거나 최소한 습득자가 목표 언어의 자막이나 대본을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Comprehensible input(CI)이라는 개념을

이해했다면, TV 화면으로는 언어 습득이 대부분의 경우에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이해하셨을 겁니다. TV는 여러분에게 CI을 거의 제공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방송에 나오는 콘텐츠는 이미 모국어가 완성된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현재 수준에서 약간 어렵거나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한 CI에 노출되었을 때 언어 습득의 효율성이 최적화됩니다. 그러나 영상의 CI가 매우 부족한 경우라면, 영상만으로 외국어를 습득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집니다.

미국에서 청각장애가 있는 부모 사이에서 자란 Jim 형제가 있었습니다. Jim 형제의 부모는 형제에게 말을 가르칠 수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TV를 보면서 자라면, 언어를 습득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는 그렇게 TV를 보면서 자라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형제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을 때 사회복지사가 Jim 형제를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TV를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정상적인 대화는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언어 습득에 실패한 겁니다. Jim 형제는 또래 아이들과 비교해서 언어능력이 30% 정도만 발달해 있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모국어를 습득하는 아이들이 TV 방송이 언어라는 사실을 인식하더라도 방송되는 내용은 이미 모국어에 능숙한 성인을 위한 방송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TV 자체는 아이들에게 Comprehensible input을 거의 제공하지 못합니다.

영상링크: 009

러시아어로 진행되는 방송입니다. 이런 영상을 문자정보 없이 이해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런 영상을 1만 시간을 그냥 본다고 해서 언어 습득이 될까요? 일반적인 TV 방송은 이미 모국어가 완성된 성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겁니다. TV는 여러분에게 Comprehensible input을 거의 제공하지 못합니다.

남아공 출신의 영화배우 샤를리즈 테론이 TV 시청으로 영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습득했다고 하는데 그녀의 모국어인 아프리칸스어는 서게르만 어족에서 파생된 언어로 영어와 유사합니다. 어휘는 네덜란드어에서 90% 정도 기원하였고 아프리칸스어는 영어 사용자에게 음성학적으로도 발음도 편안하고,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빨리 배우는 언어가 아프리칸스어라고 합니다. 당연히 샤를리즈 테론이 영어를 못 읽었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언어의 거리가 가깝고 음성학적으로 유사한 언어는 TV로 배울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와 영어, 불어와 중국어, 독일어와 아랍어처럼 언어학적으로 거리가 먼 언어를 아무런 지식도 없이 TV만으로 배운다는 건 사실상 망상에 가까운 발상입니다. TV를 보고 언어 습득에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이미 해당 언어를 문자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Terence Tao

일반적인 TV 영상을 보면서 언어를 습득하려면 미리 내용을 알고 있거나 대본 또는 자막을 읽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특수한 천재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1975년 7월 17일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태어난 테렌스 타오, 그의 부모는 타오가 2살일 때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전혀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살의 나이에 사칙연산을 할 줄 알았고, 5살 수준의 영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타오의 아버지가 숫자와 문자를 어떻게 알았냐고 그에게 물었을 때, 타오는 세서미 스트리트라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이해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타오가 태어난 곳은 호주였지만 부모님은 둘 다 이민자 출신으로 가정에서 중국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타오는 TV를 통해서 알파벳과 영어, 사칙연산을 동시에 습득했습니다.

말과 글을 동시에 습득했다는 겁니다.

청각 장애가 있던 부모 밑에서 TV를 보며 자란 Jim 형제, 그리고 5살 때부터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을 수백 번씩 시청했던 나기업씨 그들에게 불가능했던 일이 어떻게 타오에게 가능했을까요? 타오의 하두정소엽(Inferior parietal lobule: 시공간 인지 기능과 수학적 사고 등을 담당하는 영역)의 기능이 LAD(생물학적 언어 습득 장치)의 기능과 대등할 정도로 발달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숫자와 알파벳 같은 기호를 이해하고 시공간 정보를 다루는 능력이 선천적으로 강력했다는 겁니다. 타오의 아버지는 의사였고 어머니는 수학 교사였다고 합니다. 타오는 8살에 800점 만점의 SAT 수학에서 760점을 받았습니다. 8세 나이에 SAT 수학에서 7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람은 역사상 타오를 포함해서 2 명뿐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반적인 TV 영상(뉴스라던가 드라마)을 통해서 외국어를 습득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이 극단적인 천재이거나 이미 글을 읽을 줄 알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원어민과 생활을 하거나 어울리면서 실생활에서 CI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고 기본적인 어휘력 자체가 없는데 사회적 접촉 없이 TV만 보고 언어를 습득한 케이스는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TV만으로 언어 습득이 가능했다고 하는 사람도 학교나 사회에서 이미 해당 외국어를 접한 사람들이었고 일반적으로 예외는 없었습니다.

타오가 TV로 문자와 산술 문제를 스스로 습득할 정도로 사고판단 능력이 높았기 때문에 TV로 복잡한 언어를 습득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타오의 케이스는 특수한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유아가 TV로 언어를 습득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는 만 2세 미만의 아이에게는 텔레비전과 비디오 시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유아에게 과도한 TV 시청은 유사 자폐, 유사 발달장애, 언어 장애와 사회성 발달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13세가 된 타오는 호주 아동발달심리학자 미라카 그로스(Miraca Gross)가 실험한 영재표본집단에서 Adrian Seng이라는 가명으로 소개되었고, Adrian 은 스탠퍼드-비네(Stanford-Binet) 검사에서 비율지능지수가 220이었으며 환산된 표준편차지수는 175+로 측정 가능한 최고수치였다고 합니다. (IQ가 220을 넘지만, 그 이상은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의미)

문자를 읽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TV 영상을 단순하게 그냥 계속 보기만 해서 언어 습득이 가능하다면, 아래의 영상과 같은 실험 결과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상링크: 010

Patricia Kuhl 박사의 실험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험에서 아기들은 영상이나 오디오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TV와 같은 인공적인 장치는 아기들에게 별다른 자극을 주지 못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뇌에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가 언어 습득의 스위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인은 인지적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기들은 자신의 생존과 밀접한 사회적 기술을 본능적으로 습득합니다. 모국어를 습득하는 시기의 아기들은 주변의 소음과 모국어를 구분하기 위해서 실제 자신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족이나 이웃에게서 들려오는 소리에 더 많이 집중하고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LAD

(Language Acquistion Device)는 주변 소음과 말을 구분합니다. 아기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모국어를 습득합니다. 어른들도 아이들에게 쉬운 말과 약간 높지만 분명한 발음과 과장된 행동으로 CI (comprehensible input/이해 가능한 입력)을 제공합니다. 아기들에게는 사회적 관계와 CI가 언어 습득의 열쇠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인 대부분은 이미 모국어를 알고 있으므로 외국어를 본능적으로 습득할 이유가 없고 사회적으로 보아도 성인에게 CI을 제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인에게 주어진 사회적 위치나 환경을 고려하면, 성인의 LAD는 사실상 대부분의 사회에서 마비된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LAD가 유효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사용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교묘하게 우회해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Zambi의 경우처럼 모국어가 완벽하게 차단된 새로운 환경에서 그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그 지역 주민들과 생활하면서 그 지역에서 통용되는 언어에 100%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 좋겠지만, 상식적으로 EFL 환경에서 일반적인 삶의 방식으로는 그런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좀 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스스로 외국어를 읽어서 다양한 단어와 어휘 말뭉치(lexical chunks)를 이해하고 문법을 습득하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서 이후에 영상이나 오디오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습득된 언어 능력은 영상을 보고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무의미했던 영상이 Comprehensible input이 가능한 콘텐츠로 바뀌는 것이죠. 일종에 칵테일 파티 효과와 비슷한 겁니다. (미리 알고 있거나 유사한 유형의 정보는 잘 들리죠) 영상을 유의미한 정보로 이해할 수 있도록 조건을 미리 조성하면, 두뇌는 새로운 언어를 습득할 준비가 끝난 겁니다. 구어체로 작성된 스크립트를 300 WPM(Words per minute)의 속도로 읽으면서 대략 내용의 75~85% 이상을 이해할 수 있다면, TV로 얼마든지 언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미권 뉴스 앵커의 평균 말하기 속도는 160 WPM 입니다.

여러 가지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독서광이라는 건 절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많이 읽어야 합니다.

읽기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스티븐 크라센(Stephen Krashen) 박사의 저서인 읽기 혁명(The Power of Reading)에 자세히 나옵니다. 외국어를 습득하는데 부모 역할을 해줄 가족이나 동료가 없다면, 읽는 행위가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만 12세에 국내 최연소 토플 만점자로 기록된 성휘연 양의 사례만 보더라도 원서 읽기의 효과가 얼마나 탁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성휘연 양의 어머니는 아이가 유학 경험이 없고 단어 공부나 참고서를 보고 공부를 한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 흔한 영어학원조차 다닌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의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설명할 방법은 장시간의 원서 읽기와 식사 시간에 외국어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 말고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Garry Kasparov.
IQ. 191, Chess grandmaster.

얼마나 많이 알아야 할까요?

1997년 세계 체스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를 이긴 슈퍼컴퓨터 딥블루는 초당 2억 개의 경우의 수를 분석할 수 있었다. **카스파로프에게 말을 이동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초당 몇 개나 분석해낼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한 개도 어렵다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그는 도대체 어떻게 딥블루와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바로, **고도의 훈련을 통해 습득한 강력한 패턴인식능력**이다. **카스파로프는 약 10만 개의 말의 이동경로를 알고 있었다.** 이것은 우연한 숫자가 아니다. 어떤 분야든 대략 10만 개의

지식뭉치를 통달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셰익스피어는 약 10만 개의 어휘로 희곡을 썼다.

카스파로프는 체스판에 놓인 말을 보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말이 이동할 수 있는 10만 개의 경우의 수를 대조한다. 이러한 **10만 번의 대조는 순식간에 일어나며, 눈 깜박할 사이에 일치하는 것을 찾아낸다.** 모든 뉴런이 패턴을 떠올리며 정보를 처리한다.

우리의 신피질은 얼마나 많은 패턴을 저장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리던던시redundancy'라는 현상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우리는 연인의 얼굴을 단 한 번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다. 수천 번 입력된 정보가 저장되는 것이다.** 그중에는 똑같은 이미지가 반복되어 입력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조명이나 표정이나 시점 등에 따라 제각각 달라 보이는 얼굴의 이미지가 입력된다. 하지만 **우리 뇌는 컴퓨터와 달리 이미지 자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패턴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반복되어 입력되면서 '패턴'으로 저장된다.**

<레이먼드 커즈와일의 마음의 탄생 중에서>

아래는 Comprehensible input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상과 글이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All Japanese All the Time을 응용하기.

영상링크: 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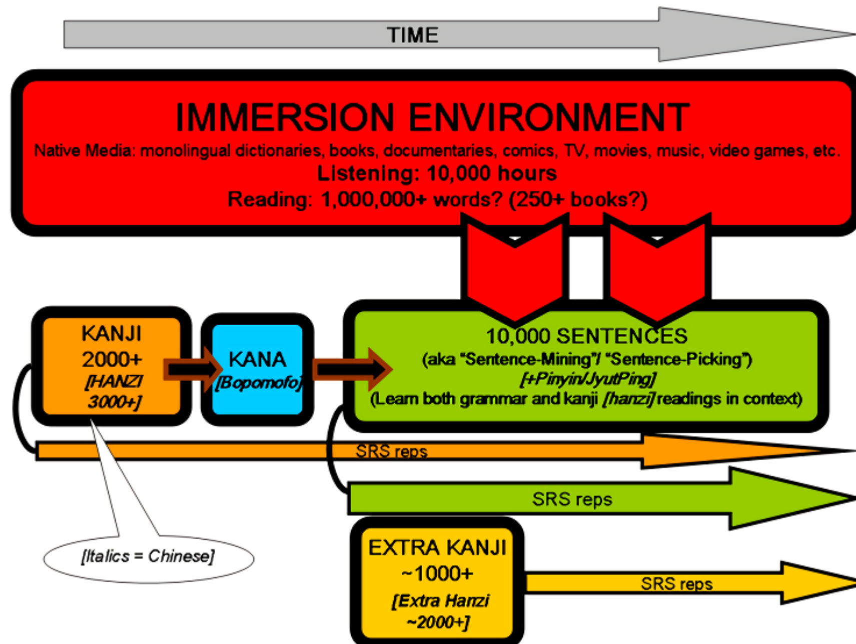
AJATT 블로그의 운영자 Khatzumoto 입니다. Khatzumoto의 AJATT Method는 Tomasz P. Szynalski의 Antimoon Method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둘 다 기본적으로 Stephen Krashen의 입력가설(The Input Hypothesis)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방법론입니다. 1년간 말하기(일본어 대화)를 하지 않았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문법을 학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유학이나 어학연수도 없었습니다.

AJATT Method는 단순하지만, Anki와 같은 SRS(spaced repetition system) 소프트웨어를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Immersion과 Flow를 위한 환경을 스스로 만들고 극단적으로 많은 Input을 합니다. 주로 애니메이션, TV 방송, 팟캐스트를 듣거나 소설책을 읽고 남는 시간은 한자를 암기하거나 영상이나 소설에서 새로운 문장을 수집하고 Anki에 넣어서 읽고 듣고 큰 소리로 따라 했다고 합니다. 앵무새처럼 뜻도 모르면서 반복해서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면서 낭송(朗誦)을 하는 겁니다. 하루 중 남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대부분을 듣기에 투자했고, 원서는 대략 250권 정도 읽었다고 합니다.

18개월 동안 1만 시간을 읽기와 듣기에 투자했고, 다양한 콘텐츠에서 1만 문장을 수집하고 정리했다고 합니다.

문법과 한자어는 문맥으로 익혔다고 합니다. 12개월 경과 후 어느 정도 일본어로 대화가 가능해졌고, 18개월 이상 지났을 때 분명 유창하게 일본어로 대화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일본어를 완전히 습득한 Khatzumoto는 이후 일본으로 이주했고, 자신의 전공(소프트웨어 개발)을 살려서 SONY에

정직원으로 입사했다고 합니다. 일본어를 배우기로 마음먹고 미국에서 일본어 강의를 잠시 수강했었는데 학교에서 제공하는 강의로는 자신이 원하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강사 앞에 1만 시간 동안 앉아 있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Khatzumoto가 입력가설(the Input hypothesis)을 자신에게 적용한 과정을 정리하면 위의 표와 같습니다.

1. Khatzumoto의 AJATT method (미국인이 18개월 동안 일본어를 습득한 방법)

2. Table of Contents / All Japanese All The Time Dot Com: How to learn Japanese. On your own, having fun and to fluency.

Khatzumoto씨의 AJATT Method를 정리해둔 목차입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방대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영상링크: 012
영상링크: 013
영상링크: 014

Jeff Brown 교수가 문법 학습 없이 크라센의 자연적 접근법만으로 영어권 원어민에게 레벨 5에 해당하는 아랍어를 1년 내에 습득히는 과정과 결과를 인증하는 영상입니다.

영상링크: 015

해리포터 한 권을 3시간이면 다 읽는다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과의 대화에서 아무런 막힘이 없습니다. 쿠라라양은 처음에 동화책부터 읽기 시작했고 읽기와 대화하기를 9:1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쿠라라양의 어머니에 따르면 쿠라라양이 980점의 토익점수를 받은 초등학교 6학년 시기까지 영어사전에서 단어 찾는 방법도 몰랐다고 합니다. 읽기와 대화만으로 영어를 정복한 겁니다.

영상링크: 016

Rich Brian은 해석 없이 영어로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있습니다. 현지 원어민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Rich Brian입니다. 힙합 가수인데 다들 미국인으로 오해하지만 인도네시아 출신으로 그는 어린 시절 부모의 방치로 인하여 학교를 다닌 적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분은 루빅스 큐브와 힙합이 너무 좋아서 영어로 되어 있는 Youtube 채널을 보면서 루빅스 큐브를 배웠고 그 과정에서 힙합에 심취하게 되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단어나 전문용어부터 시작해서 일상적인 단어뿐만 아니라.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계속 찾아서 영어로 된 글을 읽었다고 합니다.

모국어로 그것들을 설명한 자료를 찾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영어로 된 자료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처음에 영어를 배울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또 당연히 영어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단지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서 보고 듣고 읽기만 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을 영어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리치 브라이언은 미국에서 살았던 것도 아니고 해당 인터뷰 영상도 2018년 4월에 녹화되었는데 리치 브라이언은 2017년 5월에 미국에 입국했다고 합니다. 브라이언이 입국하고 11개월 지나서 인터뷰 녹화가 진행된 겁니다. 당연히 리치 브라이언의 영어는 미국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브라이언의 영어가 워낙 자연스럽고 정확하기 때문에 방송 진행자는 브라이언을 미국 태생의 현지인으로 생각하고 최근 LA에 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라디오 인터뷰 영상을 보시면 어떠한 막힘없이 자유자재로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브라이언은 루빅스 큐브를 배우려고 유튜브에서 튜토리얼을 보면서 배우고 여러 대회에도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튜토리얼을 보고 들으면서 화면에 나오는 퍼즐을 맞추는 모습을 따라 하면서 언어의 문법적인 요소를 습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랩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어를 배웠는데 들리는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찾았는지 Faygo라는 미국의 작은 청량 음료수 회사를 알고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https://youtu.be/M35aCSCyf8A

눈감고 소리만 들어보세요.

https://youtu.be/b0UMESZUJGU

https://youtu.be/6iey0WQBwWc

자연스럽다는 기준으로 보았을 때 Mathieu씨는 성인 기준으로 가장 완벽하게 외국어를 습득한 사례 같습니다.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고 몰입했다고 합니다. 읽거나 들어서 못 알아듣는 한국어 표현은 없는 것 같다고 하며, 처음에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어 책이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소비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번역일도 하면서 책을 빠르게 읽어 나갔고 대부분의 단어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학원이나 학습 교재로 한국어를 배운 적은 없고, 이후에 한국에서 6년 정도 생활했다고 하는데 한국에 오기 전에 이미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영상링크: 017 영상원본링크

자신의 언어 실력 인증 그리고 노하우를 공개하시는 김덕엽 씨. 왜 학습 교재가 필요 없는가. 왜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언어를 배워야 하는가. 왜 상위 20%의 어휘로 대화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 ☺

가끔 머리가 나빠서 언어를 못 배운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래 고릴라를 보시길 바랍니다. ㅋ

영상링크: 018

패터슨 박사와 코코가 대화하는 모습입니다. (고릴라는 당신보다 똑똑합니다.)

코코는 세계 최초로 미국 수화를 사용하여 인간과의 대화에 성공한 고릴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코는 생전 2,000개의 영어 단어를 인지하고 1,000개의 수화 동작을 구사해 인간과의 대화에 가장 성공한 유인원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패터슨 박사는 코코에게 수화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영어로 말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나중에 영어도 잘 알아 들었다고 합니다. 고릴라는 음성언어로 말을 할 수 없어서 패터슨 박사가 영어로 말을 걸면 코코는 수화로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코코가 언어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코코가 새로운 단어를 스스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패터슨 박사는 코코에게 '팔찌'와 '손가락'이라는 단어를 가르쳐 주었지만, '반지'라는 단어는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코코는 교사가 착용하고 있던 반지를 가리키며, 팔찌와 손가락을 가리키는 신호를 결합했다고 합니다. 반지라는 단어를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코코는 2018년 6월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에서 46세의 나이로 자연사했다고 합니다. 코코 외에도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했던 유인원이 더 있었습니다.

칸지라는 이름의 보노보(피그미 침팬지)는 렉시그램으로 3,000여 개의 영어 단어를 배워 대화할 수 있었고, 언어 소통 외에도 스스로 불을 피우거나 프라이팬을 이용해 달걀을 요리하는 등 사람의 일상생활을 흉내 내거나, 컴퓨터를 이용해 비디오 게임을 즐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유인원은 사람과 달리 단어를 불규칙적으로 나열한다고 합니다.

1965년 서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침팬지 워쇼는 두 살 때부터 연구원들에게 수화 교육을 받았습니다. 1년여 만에 350개의 수화를 익힐 만큼 다른 침팬지 무리보다 학습능력과 IQ(지능지수)가 뛰어났고, 워쇼는 수화를 조합해서 '마시는 과일'(멜론)처럼 특정 단어를 설명하는 방법에 능했다고 합니다. 한 사육사가 거울에 비친 워쇼를 향해 "그게 뭐니?"라고 묻자 워쇼는 수화로 '나, 워쇼'라고 대답했다고.

유인원에게 언어를 이해시킬 방법은 그림문자나 손동작이 들어간 수화 정도가 거의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간의 두뇌가 받아들이는 오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감각은 시각입니다. 뇌에서 받아들이는 외부 정보의 70~80%가 시각 정보라고 하는데 동물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언어가 전적으로 소리에 의한 일련의 메시지라는 건 어쩌면 비과학적인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모스 부호를 장기간 다룬 사람은 신호의 미세한 시차에 의해서 상대의 감정도 읽을 수 있다고도 하고 또 청각장애가 있는 부모에게서 수화를 보며 자란 아이들이 손으로 옹알이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 모국어를 수어로 먼저 습득하고 6살에 유치원에 들어가서 한국어를 익혔다는 수어 통역사 고인경 씨 사례도 있습니다. (참고: 언어는 제스처에서 시작했다.)

간단한 바디랭귀지는 개나 고양이도 이해할 수 있는데 사람이라면 이보다 더 복잡한 것으로 언어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관련된 논문도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에 실려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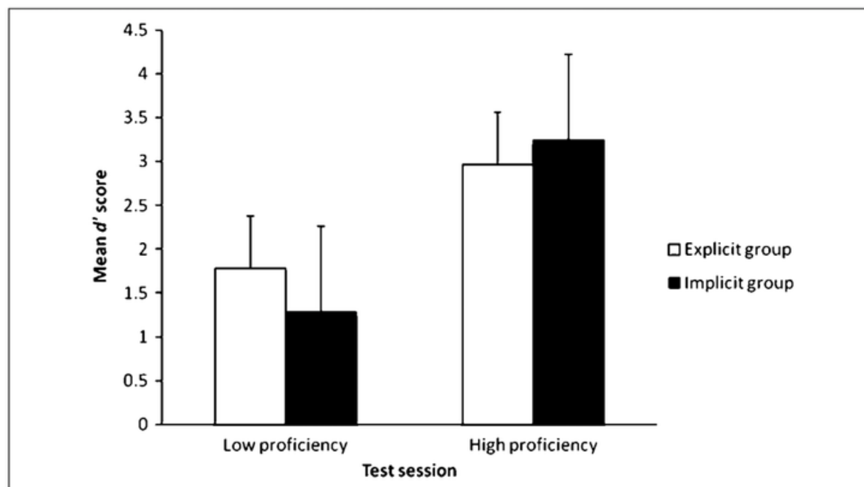
Explicit and Implicit Second Language Training Differentially Affect the Achievement of Native-like Brain Activation Patterns

명시적인 또는 암시적 제2 언어 훈련은 원어민과 같은 두뇌 활성화 패턴 성취에 서로 다르게 영향을 끼친다.

https://web.archive.org/web/20191229031105/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3558940/

과학자들은 Brocanto2라는 인공언어를 이용해서 성인 참가자들을 학습 그룹과 습득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하는 실험을 했는데 두 그룹에 기본적인 단어의 뜻만 가르치고 언어의 세부사항을 강의 위주로

설명하는 명시적인 학습 그룹과 메시지와 일치하는 체스 동작을 영상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여준 습득 그룹으로 나누어서 비교했다고 합니다. 성인 학습자들도 정상적으로 문법을 습득했다고 합니다.



문법의 정확성 시험에서 실험 참가자들의 숙련도가 낮은 초기에는 강의 위주의 명시적인 수업을 받은 학습 그룹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숙련도가 높아진 이후에는 암시적인 메시지에 반복 노출된 습득 그룹에서 더 높은 점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두 그룹의 두뇌 활성화 패턴을 비교하고 분석한 결과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강의 위주의 학습자들은 숙련도와 상관없이 원어민과 같은 두뇌 활성화 패턴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의 위주의 학습자들과 달리 암시적인 메시지에 노출된 습득 그룹의 참가자 전원에게서 언어의 숙련도가 높아질수록 원어민과 같은 두뇌 활성화 패턴을 예외 없이 일관적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언어 습득은 적절한 방법의 문제임을 암시하고, 방법에 있어서 개인차가 없다는 뜻도 됩니다.

스토크스(Stokes)와 크라센, 카츠너(Kartchner)가 스페인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미국 학생들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스페인어로 된 책을 자발적으로 읽은 양이 강의 위주의 수업보다 실제 언어사용에서 가정법 사용 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원서를 많이 읽은 학생들은 각종 어학시험에서도 평균적으로 더 높은 점수가 나왔고, 심지어 외국에 체류한 기간보다. 자발적으로 읽은 원서의 독서량이 외국어 습득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두정소엽(Inferior parietal lobule)과 각회(Angular gyrus)라는 두뇌 영역이 청각, 시각, 촉감(점자)으로 들어온 정보를 연합하고 언어정보로 변환해서 베르니케 영역(Wernike's area)으로 넘겨주기 때문이고, 그 베르니케 영역이 언어화된 정보의 의미를 이해하는 (Input)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 가능한 정보로 들어온 언어가 보편문법에 부합할 경우 브로카(Broca's area) 영역이 활성화되어 해당 언어의 문법을 습득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인간의 LAD(language acquisition device)는 언어정보가 문자, 수어, 음성언어로 서로 상이한 것으로 되어 있어도 해당 정보가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에 부합한다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습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침묵기는 브로카 영역이 Parameter(매개변수)를 형성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링크: 019

영상링크: 020

(https://youtu.be/ygXaRht8Euo)
영상상자료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시각적 단서로 어휘와 문장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FL(원어민과의 상호작용이 없는) 환경이라면 문자 정보가 필수조건입니다. 따라서 읽기를 병행해 줘야 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즐겨보신다면 댓글에서 다양한 의견을 읽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적인 수준의 1만 문장(영한)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Anki에 추가해서 사용하세요.

Anki 다운로드 링크-> https://apps.ankiweb.net/

Anki에서 오디오를 생성하시려면 AwesomeTTS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AwesomeTTS의 애드온 번호는 1436550454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s://ankiweb.net/shared/info/1436550454에서 확인하세요.
https://ankiweb.net/shared/addons/2.1**<-이곳에서 더 다양한 애드온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Why won't you take this elevator? 이 엘리베이터를 타세요.

Are you married? 결혼하셨나요?
Which do you better math or social science? 수학과 사회 과목 중 어느 것을 더 잘합니까?
I've got to run. 서둘러 가야겠습니다.
I have a headache when I sit at my desk. 책상에 앉으면 머리가 아파요.
I'll give it to you for ten dollars. 10달러에 드리겠습니다.
I never get tired of reading. 독서는 아무리 해도 질리질 않아요.
This is kinda cute. 이건 꽤 귀여운걸요.
I'm good at figures. 나는 숫자에 강해요.(계산을 잘 해요.)
Sorry to trouble you, but can you tell me the time? 죄송합니다만, 그 시간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The first period is geography. 1교시는 지리 시간입니다.
You know how it is. 그게 어떤 건지 알고 있으면서 그래요.
Mr. Peterson hates late comers. 피터슨 선생은 지각생을 싫어해요.
Have you ever considered of it? 그 점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Don't you feel tired? 피곤하지 않으세요?

(기본적인 수준의 영문장입니다. 너무 쉽다고 생각되면, 자기 수준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문장을 스스로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최초작성: 2016년 11월 25일, 최종편집: 2024년 07월 28일.

유노님
절을 올려 드립니다.
2017.3.8. 23:54

> **박군님 (블로그주인)**
> 감사합니다. ^^
> 2017.3.9. 03:53

rejoiceevermore님
원서읽기 검색하다가 우연하게 박군님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이론에 대한 글들은 많이 접했으나, 결국 확신을갖지 못한 채 하다가 중단하고, 하다가 중단하고를 반복하게 되었네요. 박군님의 글을 보고, 다시 도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2018.2.5. 11:29

독립군님
글 너무 잘 읽었습나다~! 결국 자신이 이해 할 수 있는 수준의 글을 많이 읽고 듣고해야 한다는 건가요? 무작정 미드 3000세간 듣기는 무지한 행동이군요 ㅠㅠ 감사합니다

2018.7.21. 07:44

사마청월님
안녕하세요? 말하기를 하지말라는건 영어로 타인과 의사소통하지 말라는건가요?
제가 좋아하는 주제의 글이나 기사를 보고 말하면서 혹은 영문을 외우면서 영어를 배우려는데 이러면 안되나요? 그저 읽기만해야하나요?
2019.5.5. 20:13

사마청월님
제 스스로 말을 하려는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하는말을 그대로 따라읽고 영자사설의 내용을 그대로 읽는것이요. 저 혼자서 영작해서 말을 하는것이 아니라요. 따라읽기&쉐도잉
2019.5.5. 20:29

박군님 (블로그주인)
@사마청월님 확실하게 모르거나 불확실한 문장을 만들지 말라는 거에요. 정확한 표현이면 따라하거나 글을 낭독하거나 하는 건 상관 없어요.
2019.5.5. 21:23

사마청월님
@박군님 감사합니다 박군님, 제가 현재 영단어를 많이 외워야하는 수험생인데요, 단어만 외우기보다는 그 밑에있는 그 단어가 포함된 예문으로 외우는것이 더 좋을까요? 한국 단어책이라 이상한 예문일수도 있어서 예문을 통째로 외워도 될지 모르겠어요
2019.5.5. 23:28

박군님 (블로그주인)
@사마청월님 문장에서 그 단어가 주로 무슨 뜻으로 쓰이는지 알려면 독서가 좋죠... 문맥으로 단어를 기억하기가 더 쉬움.... 자기가 알고자 하는 단어를 책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사전에서 예문을 보면 됨.
2019.5.6. 00:09

동그리님
정독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정말 좋은 정보 글임이 틀림없네요 저도 지금 영어단어를 안키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워낙 글이 길다보니 다시 읽어야겠습니다. 문법위주의 공부보다 쉬운 책을 여러번 반복적으로 정확한 발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건지요? 그럼 처음에는 쉬운 동화책같은 원서로 된 동화책을 읽어야하는건가요?
2019.5.9. 02:35

박군님 (블로그주인)
무엇을 읽어야 하는가 보다는 무엇에 흥미를 느끼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화를 좋아한다면 만화책을 보아도 좋고 요리나 스포츠에 관심이 있다면 관련된 잡지를 읽어도 됩니다. 쉬운 내용을 읽어야 한다고 하니 너무 쉬운 책을 읽거나 본인이 흥미가 없는 동화책을 읽는 건 아무래도 학습자를 중도에 포기하게 만들죠.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다 보면 원하는 결과도 얻을 수 있을 거에요.. 원서를 읽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이트를 가는지 찾아 보세요. 시중에 오디오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글을 눈으로 읽으면서 동시에 오디오를 듣고 반복해서 그렇게 하다가 발음이 다 정확하게 들린다면 오디오북을 폰에 가지고 다니면서 이어폰으로 듣고 따라하면서 생활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발음이 좋아지죠... 자기가 좋아하는 팝 가수의 노래 가사를 유심히 읽어보고 유튜브에서 해당 음악의 커버 영상을 보면서 원어민들이 노래를 할 때 입술과 혀 턱의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면서 음악을 감상해보세요. 그렇게 수십번을 듣고 조금씩 따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악을 평소에도 계속 듣고 다니는 거죠... 이렇게 하면 발음을 무의식적으로 습득하게 됩니다.
2019.5.9. 06:48

동그리님
@박군님 이른 아침에 감사합니다. 예전에도 비행기를 좋아하던 아이가 그당시 모국어로된 설명이 없어서 영어로만 계속 보다보니 자연적으로 영어가 늘고 파일럿이하는 말을알아듣고싶어서 계속들었더는 들리더라 라는것이 생각나네요 본인이 흥미 있어하는 분야, 그리고 공부하는 생각이 아닌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어야 더 빨리 늘겠네요!ㅎㅎ 또 궁금한것이 보통 한국에 정규과정(초,중,고)을 들은 사람이라면 읽고 해석하는순서가 기본인데, 위 내용에서 직독직해를 하는 것이 언어를 받아들이는데 방해를 한다고 하던데, 그럼 본인이 흥미있어하는 분야여도 알아듣지 못하고 뜻을 알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읽는것이 도움이 될까요?
2019.5.9. 09:17

박군님 (블로그주인)

@동그리님 해석을 안하고 읽어보세요. 해석하는 버릇을 고치기가 어렵고 익숙해지는데 몇 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수도 있지만 해석 없이 영어를 영어 그 자체로 이해하는 능력이 생기면 오히려 해석을 하면서 읽는 게 번거롭고 더 느립니다. 이미지 리딩에 관해서 읽어 보세요-> http://shindonga.donga.com/Library/3/02/13/103328/1 이해하기 쉬운 자료를 많이 읽고 많이 듣다 보면 영어를 언어 그 자체로 이해하게 되고 해석이나 모국어로 생각할 필요가 없을 지경이 되면 몰입이라는 경험을 하게 됨 그 과정에서 자신이 흥미가 있는 소설이나 영화를 소비하면서 지금 읽거나 듣는 내용이 외국어라는 사실을 잊어 버릴 정도로 몰입해서 집중을 하면 언어를 (문법이나 단어까지 포함해서) 무의식적으로 습득이 되고 충분한 이해가 축적되면 말하기나 글쓰기는 결과로 따라오게 됩니다.

2019.5.9. 20:10

skawjd603님

짧은 문장을 최대한인풋해서 말뭉치를 체득해라 긴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라 어느 쪽이 맞는 건가요?

2020.1.23. 19:09

박군님 (블로그주인)

문장에서 face, hair, gel, spray와 같은 단어가 보이면 거기에 어울리는 collocation을 찾아보세요.

put on = 바르다, 뿌리다 <-이런 식으로 위에 단어들과 자주 어울리는 작은 표현을 찾은 다음

1. She put spray on her hair.
2. Paul is putting hair spray on his hair.
3. She powdered her face and put on her lipstick.
4. He smelled of perfume, and looked like his makeup was put on by a mortician.

단순한 표현에서 점점 복잡한 표현으로 난이도를 조절하면서 문장을 익혀보세요.

put on: 신다, 입다, 쓰다, 걸치다, 바르다, 뿌리다. <-이렇게 예문 없이 단어만 뽑아서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것보다.

원어민이 사용하는 적절한 문장 표현을 익히는 게 언어를 이해하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예문을 읽다보면 다양한 collocation을 발견할 수 있을 거에요...

- *He had intended to **take a holiday** in New York.*
- *He wanted to see if he could **get a job** with us.*
- *I might **take a lesson** from you.*
- *My goals were to go back to school and **get a degree**.*
- *I'll **take a look** at the website and let you know what I think.*
- *He was beginning to **get angry**.*
- *Couldn't you **do a favour** and leave me alone?*
- *She should **make a** right **choice**.*
- *Could you **do a report** for me?*
- *We are to **make a contract** for a supply of raw silk with the company.*
- *I like to **do homework**.*
- *We need to **make a deal** for this project.*
- *The company is about to **go bankrupt**.*

2020.1.24. 10:26

skawjd603님

@박군님 처음엔 연어를 이용해 청크를 체득후에 단계적으로 긴 예문으로 발전시켜 언어감각을 깨우라는 말씀인거죠?

2020.1.24. 11:02

박군님 (블로그주인)

@skawjd603님 맞아요...

2020.1.24. 11:58

박군님 (블로그주인)

@skawjd603님 http://www.ozdic.com/ <-콜러케이션 온라인 사전.

2020.5.24. 07:58

미츠루님

언어에 관심이 많은데 알차고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그런데 저 카우프만 씨라는 분.. 적지 않은 나이의 도전, 그리고 90일 내의 무리한 도전이라는 핸디캡도 있었겠지만 한국어 자체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90일 도전 사건 이후 몇 년 지난 뒤 린디 보테스라는 유명한 여자랑 얘기하는 것도 봤는데 여전히 한국어 실력이 좀 민망하더군요. 본인이 직접, 관심이 가는 한국 소설가나 다른 문화 컨텐츠가 없어서 배우기 힘들다고 말하더라구요. 그런 걸 보면 역시 언어공부의 가장 큰 힘은 동기부여가 아닐까 싶어요.

2020.2.13. 09:35

박군님 (블로그주인)

카우프만씨는 중국어와 일본어도 상당한 실력이 있어서 한국어도 빨리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어로 말하려고 하면 자꾸 일본어가 떠올라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2020.2.13. 20:06

연중연둠님

크라센의 읽기혁명을 읽고 원서를 1년째 읽고 있는데요. 70~80프로만 이해가 된다면 모르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되나요? 가끔 오역하거나 모르고 넘어가는 이디엄 같은 부분이 있을텐데요. 그런 부분도 ci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오역했던 부분과 몰랐던 이디엄이 제대로 이해되고 차후에 이해가 되는 부분인가요?

2020.4.22. 07:36

박군님 (블로그주인)

크라센은 이해도가 80%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이디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알아차릴 정도가 되려면 서로 다른 문장에서 반복해서 같은 이디엄을 자주 봐야 될 거에요. 이디엄은 영어권에서도 나라마다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원어민들끼리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고, 아예 사전을 안 보면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엄청나게 다독을 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사전을 이용하는 편이 좋겠죠...

하지만 원어민도 결국 그 많은 이디엄의 뜻을 암기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라서 습득이 불가능하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무조건 학습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고 습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논리가 적용되려면, 수천 가지가 넘는 이디엄을 모두 명시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지식을 인위적으로 공부를 해서 암기하고 있는 원어민이 다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현상은 없거든요.

it's raining cats and dogs! 를 그냥 읽어선 뜻을 완전하게 알 수 없지만,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it's raining cats and dogs! 라는 표현을 영상이나 책으로 자주 접하면... 결국 아 저건 비가 퍼붓는걸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죠... 거의 똑같은 맥락에서 계속해서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도 저절로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에요. 결론은 습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읽고, 듣고, 보면 말이죠...

2020.4.22. 08:09

연중연둠님

그리고 크라센의 이론에 따르면 ci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도 억양이나 발음 같은 부분도 원어민처럼 된다는 건가요?

2020.4.22. 07:38

박군님 (블로그주인)

대체로 성인이 되어서 외국어를 배우면 발음이 좋지 못하다는 건 어느 정도 사실이긴 해요. 모국어에 익숙한 뇌가 익숙하지 못한 외국어 발음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국어에서 비슷한 발음을 찾아서 발음하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말부터 하려고 해서 발음이 망가져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일단 처음 보는 단어나 잘 안 읽어지는 문장은 자음, 모음, 음의 높낮이, 연음, 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원어민의 발음과 자신의 발음을 비교하면서 따라 하거나 본인의 발음을 녹음해서 1~2주 정도 기간을 두고 발음이 좋아지는지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 관찰하면서 반복해서 듣고 비교하고 따라 하고 녹음하고 문장 하나가 완전 귀와 입에 달라붙을 때까지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이어트레이닝(Ear training)을 집중적으로 해서 발음과 억양에 매우 민감하도록 귀를 훈련해두면, 이후에 흥미 있는 외국어 영상이나 오디오를 들으면서 내용에 몰입할 때 그 외국인의 발음을 무의식적으로 따라가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발음과 억양이 좀 더 자연스러워진다고 할까요?

외국어로 영어를 접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읽기와 듣기를 병행해서 집중하는 과정이 없으면, EFL 환경에서 외국어를 습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Rj8bxm0fERw&t=195s 아주 특수한 경우도 있긴 하죠(영상에 나오신 분 발음 좋죠?)... 막귀의 소유자라면, 일단 발음을 아주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듣지 못하면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들리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하면 사실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발음을 가지고 싶으면 좋은 귀를 만들어야 합니다. 악기 다루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2020.4.22. 09:09

연중연둠님

@박군님 제가 원서를 읽으면서도 따로 발음책이나 영영사전에서 발음기호를 찾아가면서 따로 발음 연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결론은 원어민 억양을 따라 발음연습(녹음 후 비교청취)도 어느 정도하면서 많이 들으면(CI) 좋다는 것이지요?

1년쯤 원서읽기와 미드듣기를하면서 이젠 제법 미드나 영어뉴스도 알아듣기 시작했는데요. 제 억양에 있어서는 제가 하는 방법이 맞는가 싶었거든요.

아무튼 좋은 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독하면서 시간 가는줄 몰랐습니다. 너무 유익하고 좋네요.

2020.4.22. 10:33

John님

요약하자면 ci 즉 이해가능한(70~80%)의 자료로 최대한 모국어 간섭없이 시청 또는 읽기를 하면 언어 습득이 된다
라고 이해했는데 맞는건가요??
그럼 혹시 요즘 유행하는 미드로 공부할시 (뭐 미드로 공부하는 법이야 예전부터 유행했었지만요^^;;)
대본을 이해 가능할 수준으로 이해한뒤(이해라고는 하지만 번역이나 해석이겠지만요ㅠㅠ)
그것으로 계속 읽고 듣고 해도 같은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아예 수준을 낮춰서 처음부터 이해가능한 자료로 읽고 듣는게 좋을까요?
ps 미드로 공부중이긴 한데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공부한 미드 외에
다른 새로운 자료는 듣거나 이해가 안되니 답답하네요
2020.6.7. 23:55

박군님 (블로그주인)

이해 가능한 정도는 사람마다 달라요. 평소 읽고 들은 게 많아서 영화로도 인풋이 충분하다는 사람도 있고... 동화책 읽는 것도 해석 없이는 불안해서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죠. 학교에서 하듯이 문법이나 해석 위주의 접근법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듣기에 도움이 잘 안 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느려서 그래요... 실제 일본에서도 학교에서의 영어 독해와 듣기 실력 사이에 상관관계를 조사했었는데 영어에 유창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일본인의 영어 발음은 악명높죠, 일본인의 영어 발음과 원어민의 발음 사이에 차이가 너무 커서 그런 것도 있고, 문법 위주의 수업이 듣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 결과는 당연합니다)

제 생각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1. 문법 위주의 독해가 해석을 해야만 내용이 이해되는 고질병을 만들었고, 2. 부정확하게 알고 있는 영어 발음 때문에 기대하는 것과 실제 귀로 들려오는 발음 사이에 차이를 구분하지 못해서 필기성적은 나오는데 귀로는 듣지 못하는 경우죠... 외국어가 생소한 소음으로만 들려서 그래요. 1번과 2번이 복합적으로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죠... 발음도 못 알아듣겠는데 해석습관 때문에 느려서 내용도 못 따라가는 겁니다.

1번은 말이 진행되는 순서대로 읽으면서 영어를 언어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 교정할 수 있습니다. 다독이 해답이라 할 수 있죠..

2번은 내가 읽는 것과 실제 원어민의 발음을 비교하면서 자음과 모음을 모두 교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발음해 보고 원어민처럼 발음하지 못하면 실제 발음을 못 듣고 있다고 가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꼭 본인 발음을 교정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들으려고 노력하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대신 본인 발음이 안 좋은 경우엔 정작 영어로 말을 하면 외국인이 못 알아듣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잘 들리지 않는 문장은 https://tophonetics.com/ 같은 사이트에 문장을 넣어서 IPA로 확인하고 IPA와 원문을 비교하면서 읽어 보세요. 잘못 알고 있는 발음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IPA 발음은 https://www.youtube.com/watch?v=fdRmGvmeY1U&list=PLD6B222E02447DC07 이걸 보고 교정해보세요... https://www.teachingenglish.org.uk/article/phonemic-chart 에서 Phonemic chart를 다운로드받아서 자음과 모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평소에 정확한 발음을 알고 원문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새로운 단어를 보면 뜻보다는 발음을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고 단어를 녹음하듯이 소리로 암기하세요. 영영사전에서 정확한 발음을 오디오와 IPA 기호로 확인하고 단어 정의를 영문으로 읽어보세요. 평소에 원서나 대본을 충분히 많이 읽는다면 한영사전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영어 자막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영어학습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자막에 너무 의존하면 정작 자막이 없을 때 영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막에 의존하지 마세요. 한글 자막도 내용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계속 한영자막을 켜두고 있다면 전혀 영어가 늘지 않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미드로 외국어를 배우는 방식은 유튜브에서 활동중이신 푸피님처럼 해보세요. 이분은 최근 스페인어를 읽기와 듣기로 배우고 있습니다.-> https://youtu.be/jL-wUPeMtMc

2020.6.8. 12:22

John님

@박군님 장문의 답글 정말감사합니다~!!
푸피님은 그건부터 구독중인 분이신데
생각보다 도움이 꽤 되드라고요
조언해주신대로 고쳐서 실행해봐야겟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감사합니다
2020.6.8. 12:28

박군님 (블로그주인)

중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발음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4성을 정확하게 모르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상대도 못 알아듣는다는 간단명료한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발음을 잡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독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이걸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20.6.8. 12:28

집게사장님

와 너무 좋은 글입니다. 여기서 나온 크라센씨의 책을 읽어봐야겠어요.
2020.7.2. 20:45

그럴수도있지님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논리적으로 전개하셨네요. ㄷㄷ.. 고심과 고찰을 거듭하신 게 글에서 느껴집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사심없이 순수하게 정보 전달만을 위해 이런 양질의 글을 써주시니 저절로 정독하게 되네요.
엄청난 양의 CI가 진리인 건 일찍이 깨쳤고,
편견을 없애기 위해 인풋 관련 여러 글들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 후 인풋이 중요하다는 공통분모를 추릴 수 있었으나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상의 내용(텍스트) 선행 후 듣기를 할 것이냐
무자막, 텍스트 선행 없이 무조건 듣기를 할 것이냐
였는데요, 박군님의 소중한 포스팅 덕에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20.8.14. 14:16

최고가되자

안녕하세요. 박군님 글 읽고 여기와서 몇달째 동기부여 받으며 언어 공부하고 있습니드.
맬제팬알게되서 6시간동안 보다가 글 남깁니다.
선생님의 글들을 통해 제 공부방법은 확실히 정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소리음성을 흘려듣기 집중듣기를 할 예정이고 + 원서읽기
나머지 시간은 안키를 이용해 만문장 이상을 습득하는게 목표입니다.
(글쓰신 일본통역사, 맬, 에 영감)
궁금한 부분은 안키 플래쉬카드에 영어와 한국어를 가져다 주면 계속해서 번역하고 한영을 바꿔보는 연습을 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조사 당시에 ex 일본통역사 및 맬 등도 모국어로 설명된 문장을 만개 정도 본것인가요?
그럼 종전의 번역습관이 남지는 않는디요
두번째 질문은 암기의 강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이 안옵니다.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본다고 생각하고 계속 봐야하는지. 무조건 시간을 정해놓고 암기를 통해 다음페이지로 넘어가야하는지요?
2020.10.1. 23:47

박군님 (블로그주인)

Matt vs. Japan과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아래 글들을 읽어보세요.
Anki를 효과적으로 디자인하고 활용하는 방법. (질문받고 바로 작성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toapto99/222104667643
영상으로 외국어 배우기.
https://blog.naver.com/toapto99/222093621567

토플 만점 받은 13살 '독서광' 여중생…비결은?
https://blog.naver.com/toapto99/221421429249
독서와 토플 점수의 관계
https://blog.naver.com/toapto99/221397945300
질문과 관련해서 This is big data님 추천합니다. Matt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자료를 조사하시고 계십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3rNRvcw5G29oNTPpSohlfA
(디스코드에서 유료상담도 하고 계세요) 아마 필요한 정보를 얻을 실 수 있을 거예요.
2020.10.2. 00:34

박군님 (블로그주인)
15개 국어를 구사했던 하인리히 슐리만의 외국어 학습/습득법 <하인리히 슐리만의 트로이를 향한 열정>
https://blog.naver.com/toapto99/221336034018

오래전에 TV가 발명되기도 전에 절대 번역없이 외국어를 배운다는 독일인이 있었어요. 하인리히 슐리만이에요.
슐리만은 문법공부는 시간낭비라고했고 읽는 것으로 문법을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슐리만은 단어든 문장이든 엄청나게 암기를 많이 했고 책도 다 암기가 될 지경으로 읽었고... 발음을 익히기 위해서 원어민이 운영하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었다고 함... 이걸 요약해보면 많이 읽고 암기하고 듣는다에요. 원서와 번역서를 양쪽에 두고 대조하면서 읽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렇게 꼼꼼하게 양쪽언어를 비교하면서 한번 읽으면 단어의 절반을 기억할 수 있었다고 함...

https://www.youtube.com/channel/UCXSzhbNN82PVO9rbsWbLycA
푸피님도 추천합니다. 이분도 비슷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어요.
2020.10.2. 00:52

에드가
세상에...감탄했어요. 너무 ... 너무 멋진 글입니다. 내용정리도 대단하십니다. 큰 도움 됬습니다. 정말 점말 멋지십니다.
2020.12.10. 22:58

박군님 (블로그주인)
감사합니다. 😛
2020.12.11. 03:43

산골짝에 다람쥐
내용내용지만이지만, 이렇게 많은 내용을 포스팅 할 수 있다는 것에 또 한번 놀라네요~
2022.1.30. 01:50